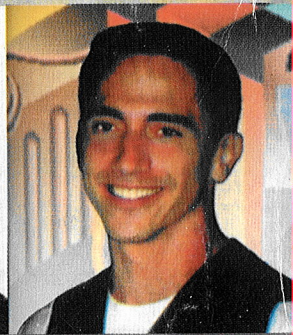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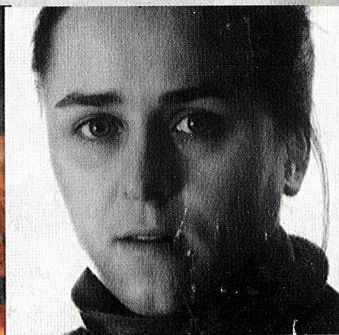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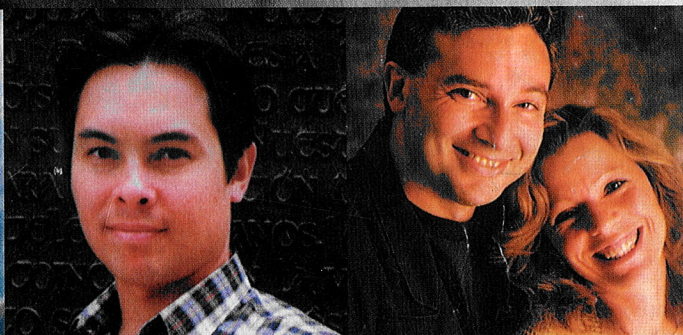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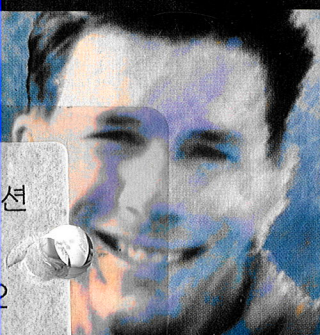
제 9회 졸업 특집
www.wmu.edu
2000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4629, Fax.(323)466-7840

2000 학년도 가을학기

월드미션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모집

월드미션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유아교육과 추가 개설 인가를 받고 2000년 가을학기에 아래와 같이 유아교육원 교사/원장 자격증 과정(Preschool Teacher/Director Certificate Program)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신자이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자

2. 수업 일정

가. 유아교육원(Preschool) 교사 자격증 과정은 15학점(5과목), 원장 자격증은 18학점(6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 학기 수료 과정이

나. 2000년 가을학기 : 2000년 8월 28일-12월 15일

다. 강의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6:10pm 8:20pm	CD 101 Early Child Growth & Development	CD 106 Child : Home, School & Community	CD 110 The Curriculum & Instruction for Early Childhood Program
8:30pm 10:40pm	CD 102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nciples & Practices	CD 107 Practic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Montessori Methods)	CD 104 Administration & Super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3. 구비 서류

입학원서 1통(본교 소정양식), 추천서 3매, 사진 2매 및 최종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각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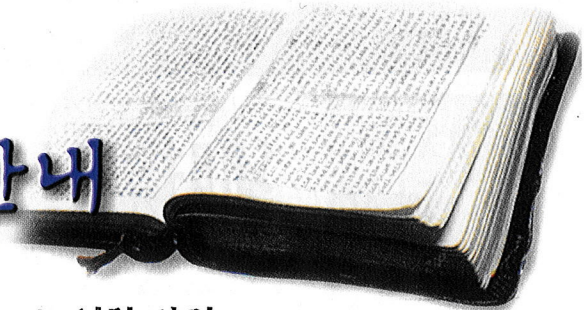
4. 등록 일정

가. 원서접수 마감: 8월 18일(금),오후7시

나. 전형: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원서 교부 및 접수

본교 사무실(학교로 방문, 또는 전화, 팩스, E-mail로 문의하여 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입학원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2000 학년도 목회학박사 과정안내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월드미션 대학교는 세계도처의 일선 목회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목회학박사 (D.Min)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목회자들에게 학문적 깊이와 실제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목회자 여러분을 이 과정에 초대합니다.

문 의

전화: 323)466-4629, 팩스: 323)466-7840
웹사이트: www.wmu.edu
이메일: wmumain@aol.com

1. 입학 자격

Master of Divinity Degree 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목회경력 3년 이상 된 목회자.

2. 이수 기간

2년의 Course Work과 1년의 논문작성,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3. 졸업학점

총 40학점 중 32학점은 Course Work 이며, 8학점은 논문이다.

4. 학 비

1학점 당 $ 200.00(장학금 신청하면, 1학점 당 $ 50.0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5. 강 의

1년에 두 번(봄, 가을)에 집중강의를 한다.

6. 강 사

미 주류 신학교의 저명한 교수들과 한인 신학계의 명성 있는 교수들의 강의한다.

7. 등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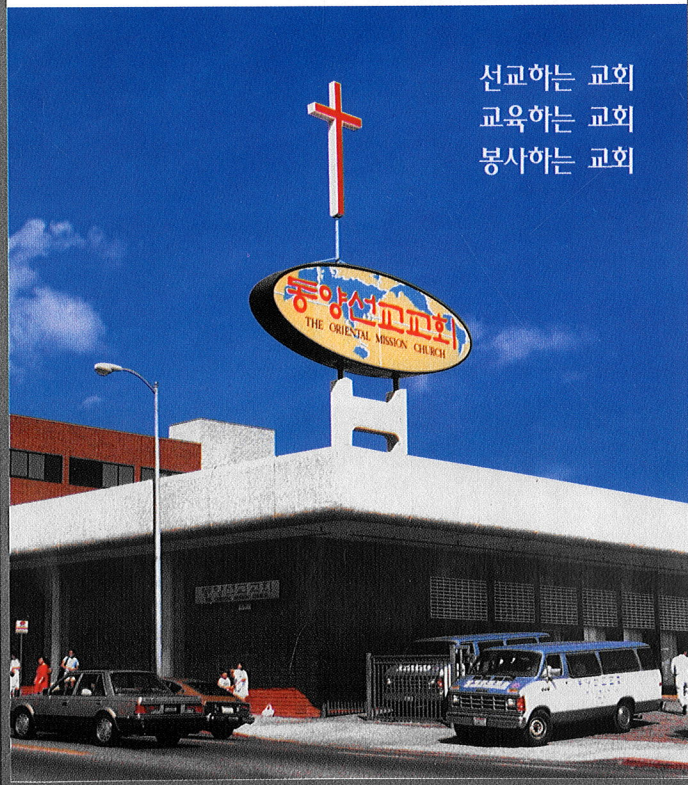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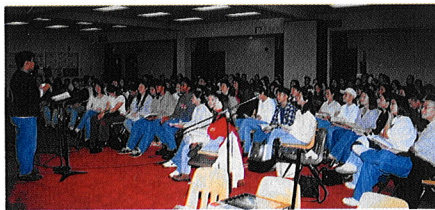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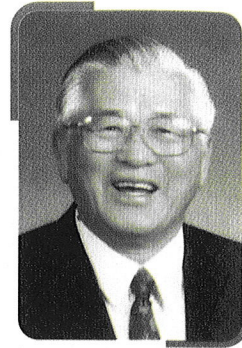
2000년 가을학기: 6월 1일(목)-7월 31일(월)
2001년 봄 학기: 12월 1일(금)-1월 31일(수)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

교민과 함께하는 동양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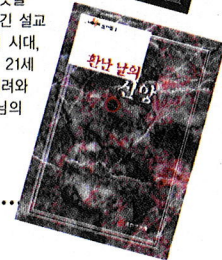
424 N. Western Ave. LA, CA 9004
Tel. 323.466.1234/0914

담임목사: 임동선

임동선 목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

세 번째 설교집
새 계명의 사랑
임동선 지음/430면 · 12,000원 · 양장

네 번째 설교집
환난 날의 신앙
임동선 지음
398면 · 12,000원 · 양장

50년 이상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진리와 신앙 체험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살아 있는 간증이 담긴 설교집으로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한다.

목회간증집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임동선 지음 · 356면 · 10,000원 · 양장

신앙간증수기
이민 목회자의 아내
임재순 지음 · 250면 · 9,000원 · 양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소명의 길을 따라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임동선 목사와 그 삶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동역자로서 함께한 아내 임재순 사모가 이민 목회 기간 동안의 은총의 시간들을 회고하며 땀과 눈물 속에서 체험한 샘솟는 기쁨을 목회 간증 및 신앙 간증 수기로 엮고 있다.

월드미션 헤럴드

2000

제 9회

교수 논문

학생 논단

학생논문

발행인: 임동선, 발행일: 2000년 6월 1일 발행처: 월드미션 학술부
편집인: 남종성, 편집부: 박재민, 서옥경, 주문경, 장윤정, 최임식
출판인: 장기용(베스트가이드사 www.cnntv.org 213)251-0020)

총장 임동선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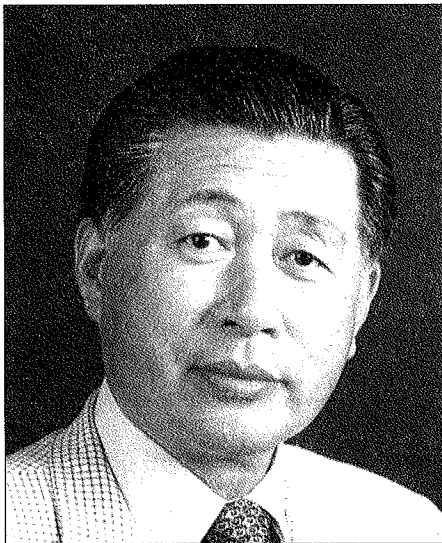
제9회 졸업식을 맞이하여 월드미션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충실히 훈련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볼 때 저의 마음은 대단히 흐뭇합니다. 우리 학교는 앞으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기초 다지기를 개교 이래로 계속해서 힘써 왔습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교수진들과 이사진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이번에 졸업하시는 학생들 모두는 학교에서 훈련받은 대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통수단만 하더라도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수 십세기 동안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시속으로 따지면 약 10K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좌석 앞에 설치된 스크린에 현재의 고도와 속도를 말해주는 것을 보면 시속 700Km-90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것도 보면 예전에 비하여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즉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민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분별해서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인간지식의 총화가 매 10년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학자들이 말을 했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것도 벌써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근대문명을 말할 때, 16세기를 상업혁명시대, 17세기를 과학혁명시대, 18세기를 지성혁명시대, 19세기를 산업혁명시대 등으로 그 시대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를 맞은 현대는 어떤 하나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불특정하고 형식과 가치관의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국가적 추세를 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나 APEC과 같이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구심운동도 있는 반면, 구 소련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는 원심운동도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도 몇 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종식은 전쟁의 위험은 감소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공백을 가져와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맞이한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면서 컴퓨터와 같은 강력하고도 비인격적 군왕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교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경원어나 교회역사 그리고 조직신학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현대 문명의 흐름에 잠시나마 단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목회전략이나 선교전략 등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신학의 기본적인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다보면 외부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 할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21세기의 거대한 문명앞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체 우리도 똑같이 시대문명에 그대로 떠내려가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시대가 아무리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강력하게 역사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역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은 공허한 상태에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과 예수정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범죄가 상승하고 마약이 만연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볼 때 우리의 할 일은 더 많아 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이 때에, 월드미션의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이 기홍 목사

월드미션대학교의 제9회 학위수여식을 충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학위를 받으시고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뒤에서 밀어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삶을 헌신코자 선지 동산인 월드미션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정작 낮에는 일터에서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업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길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면에서 역사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일반 신학 대학의 교육 이념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각 교단의 신학을 정립하는 일이고, ② 기독교 교역자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③ 높은 학적 수준과 깊은 경건의 훈련을 지향하고, ④ 헌신적인 선교 요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졸업생을 배출한 월드미션 대학교와 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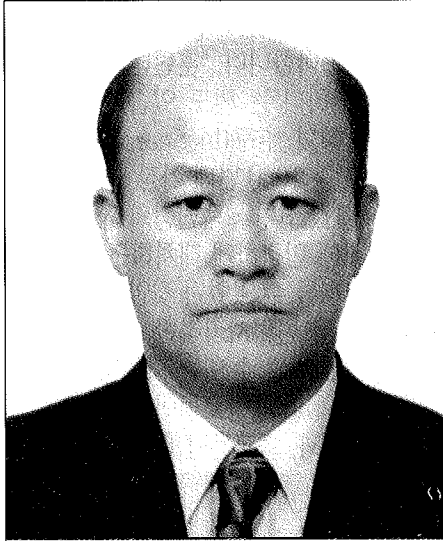
첫째,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목회자가 되는 일에 축하를 드립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계의 여러 기관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역입니다. "의료계에서 일을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하고 법률계에서 일하려면 판, 검사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목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가 될 때 자기 사역에서 효과 있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목양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크게 일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목사가 가는 길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사명이 중요하고 나라에서는 교회의 나아가는 길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사역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시는 일에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그리고 교회의 제직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부흥'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교회 지도자 10명 보다 훈련 받은 지도자 1명이 귀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Thomas Peters 와 Robert Waterman이 쓴 "탁월함의 추구(In Search of Excel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IBM 과 3M"등 1980 년대 가장 탁월한 기업 43개를 분석하여 "성공한 회사의 공통점"을 나열했습니다. 탁월성의 공통된 이유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탁월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는 말은 뜻이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목화자와 함께 장로들이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신학대학 안에 사회교육과, 종교음악과, 기독교교육과 그리고 한방의학과 등을 두는 것도 지도자 양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성숙하여야 하고 계속 배우고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양성하고 세계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되는 일에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에 있으며 국내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세계선교에 있습니다. 본교 통계(1999.6)에 의하면 지난 8회 졸업생까지 135명이 졸업하였고 그 중에 목회자 66명 선교사 21명 도합 87명이 목회와 선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은 귀한 일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145개국에 7,000여명(부부포함)나가서 선교하고 있으며 세계 선교사 파송 비율(인구비율)이 뉴질랜드가 첫 번째이고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월드컨선(World concem)선교 단체에서는 400여명 평신도 선교사(음악교사, 영어 교사, 의사, 간호원, 엔지니어, 농업기술자 등)를 기독교 선교사들을 받지 않는 나라에 파송 하여 그 나라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World Mission"이라는 학교 명칭에 부합하게 세계 선교에 공헌을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본 대학은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막 16:15)"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대학교의 총장님과 교수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시는 이사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재학생 여러분과 졸업생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호기성 목사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기

호기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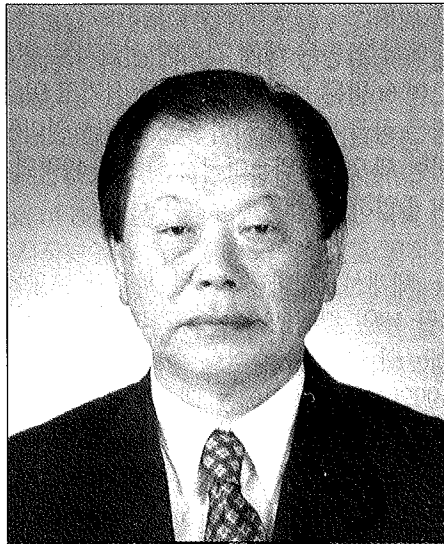
본 대학교 제9회 학위 수여식에 즈음하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인 호기성 목사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호기성 목사는 1942년 1월31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235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청량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와 동 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를 수료한 다음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청량리교회, 돈암동교회 등에서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였고, 노원교회에서 단독목회를 하면서 1972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27회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서귀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그리고 천호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목사로서 단 한번만이라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사명자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가옥을 바쳐 1982년에 샛별교회(서울 중랑구 면목동)를 개척하고, 1999년까지 18년간 목양일념으로 지역사회 복음화와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85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중앙지방회장, 1992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교육부장, 1996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지역총회 총무 등을 역임하므로 교단 발전을 위하여 전력 봉사함으로 교단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 총 동문회 총무(1995-1996)로 2년간 봉사함으로써 동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발전을 위하여도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1990년-1997년까지 8년간 서울중앙신학교에서 후학들의 양성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역자들의 계속교육을 추진하는 교단소속 기관인 총회교육원에서 교단 목회자들의 미래 목회를 더욱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기성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앙기조인 4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근간으로한 경건훈련을 꾸준히 하였으며 학구적 열의를 가지고 부단히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학구적인 목회자 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35년간 오로지 목양과 선교일선에서 쌓아올린 희생적인 노고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요 상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은 어디에서나 화목을 이끌어내는 목사라는 평을 듣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의 귀감이 됨은 물론입니다. 자신의 저서인 "신앙의 항해" 라는 설교집을 통하여 그의 신학적인 기초 위에 폭 넓은 목회경험을 전수함으로 많은 동역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음은 물론 뜨거운 신앙과 넓고 깊은 사명감으로 평생을 일관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입니다.본교는 박사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호기성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바입니다.

주후 2000년 6월 4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모귀기 장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기

모귀기 장로

본 대학교 제9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훌륭한 신앙인이요, 모범적인 교육자이신 모귀기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모귀기 장로는 1932년 8월 31일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순박한 농촌에서 출생하여 1940년대 초 광주로 이거하여 성장하면서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에서 수학하였다. 일본의 압제와 해방후의 혼란기, 6.25전쟁, 4.19의거, 5.16 군사독재, 5.18 민족항쟁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격변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양심과 조국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왔다. 그는 처 이정매 권사와 2남 2녀의 자녀 그리고 10명의 손자, 손녀와 더불어 화목한 교육가 집안을 이루면서 일생을 훌륭한 교육자로서 봉직하였다.

1960년 초 숭의 중 · 고등학교 교사로 초임 부임하여 광주시내 중 · 고등학교에서 15년이상 사회교과 교사로 봉직하였으며 그후에는 송원 남·여 고등학교 교감으로 10년, 송원 중 · 고등학교 교장으로 10년, 총 35년간 약 10만명의 학생에게 하나님 사랑, 인간 존엄, 국제적 실력 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존경을 받으면서 교직을 감당하다가 1997년 8월, 65세의 정년을 맞이하였으며 또한 사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국사립 중 · 고등학교 교장회 부회장과 광주광역시 교장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사학의 독립성과 자주성 확립에도 일조하였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중 복음을 전도표제로 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제일교회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고 집사로써 12년간 봉직하였으며, 더 나아가 1972년에 장로로 장립된 후 28년간 시무하며, 청지기로써의 직분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결교단을 위해서 전국 남전도회장과 전국장로회 부회장 등 중책을 맡아 평신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1978년에는 성결교회 총회 회계, 1986-1990년 제 12대 총회 재단이사, 1997년 91차 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목회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운영이사,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 서기, 한국성결신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성결교단의 부흥과 신학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표창으로는 1978년 교단 70주년 기념식 때에 광산 대창교회 개척에 대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의 공로패와 1977년 8월 28일 대통령이 수여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금까지 헌신해 왔던 교육에 대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신학대학과 교역자 양성을 위해 진력해 나갈 것이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모귀기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주후 2000년 6월 4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21세기를 향한 월드미션대학교

교무처장 임성진교수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성령님의 권면인 선교를 위하여 월드미션대학교는 세워졌다. 본교는 복음적(evangelical) 초교파(interdenominational)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를 훈련시켜 사역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자들을 발굴하여 훈련을 받게 함으로 그들이 능력 있는 선교사, 충성스런 목회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 쓰임 받게 하는 사역을 11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감당해 오고 있다.

1989년 3월 27일 32명의 신입생으로 시작된 월드미션대학교의 역사는 지난 99년 6월 6일의 제 8회 학위수여식까지 135명의 충성되고 헌신된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이들 중에서 21명은 세계 각처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으며 66명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30여명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있다. 이번 제 9회 학위수여식을 통하여 42명의 헌신자들이 졸업하게 된다.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시작된 본교는 1991년 3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석사학위(M. Div. 와 M.A.)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고, 1992년 8월 18일에는 대학부(B.A.)과정의 인가를 취득함으로 학부와 대학원과정으로 나누게 되었다. 1993년 5월 10일에는 미국정부 INS에서 유학생들의 입학을 위한 I-20 Form의 발급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29일에는 대학 학문의 다원화를 위하여 신학대학을 종합대학교로 개편하고 명칭을 World Mission University/Theological Seminary(한글명: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로 변경하였다. 1994년 10월 9일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의 주 정부 인가를 받았으며, 1997년 6월 2일에는 한국의 목회신학연구원과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은 불확실함 속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역사의 종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온갖 무질서와 상반된 사상들과 열려진 것 같으나 갇혀진 가치관과 비 신앙적인 도전 속에 있는 월드미션대학교는 미래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본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해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본교에서 발행한 I-20 Form으로 Visa를 받고 입국하였다. 이것은 우리 학교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는 L. A.지역의 학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선교일선에서 사역하던 평신도 선교사들이 깊이 있는 신학과 선교에 대한 전문지식을 더욱 강화하고자 본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우리 학교가 선교사 양성과 선교사 계속교육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선교센터의 사역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 3월 7일에 평신도성서대학이 시작되었다. 지역교회의 평신도지도자들이 성경적 기초를 닦고 기독교적 인격을 연마하여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등록하여 기쁜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있음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AABC(Accreditatio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AABC에 가입함으로 행정적으로, 학문적으로 더욱 견실한 학교로 발돋움하게 되고,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미 주류 신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자치활동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어 경건의 시간을 스스로 준비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부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변하여 이번 월드미션헤럴드는 학술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였다. 이밖에 산상수련회, 개강부흥회, 헌신예배를 통하여 전인적 영성훈련을 다지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장학금 수혜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크게 격려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발전이 계속되기 위하여 장, 단기 전략이 세워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어 나가야 하겠다.

먼저 월드미션대학교의 사역은 학교 이름과 목적이 부합되는 선교사역에 기여하는 것이다. 선교사 헌신자들에게 신학과 선교학(문화인류학, 역사)과 언어 훈련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주며, 선교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어야한다. 장기적인 선교사역을 위하여 선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영성훈련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월드미션대학교와 세계복음선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세계선교센터를 세워 선교사의 건강관리, 선교사의 자녀교육, 선교사의 노후대책 등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선교학과를 신설하여 선교에 불타는 마음으로 충만한 선교 지망자를 발굴하여 세계 어느 곳의 선교지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그들을 전인적인 선교사로 양육하여 세계 곳곳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들은 파송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고 현지인 중에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면, 본교는 추천된 현지인을 미국에 초청하여 훈련시켜 다시 현지로 돌아가게 하는 선교정책을 시행하여 나감으로 자연스럽게 English Track이 생기게 되며, 이것을 발전시켜 소명 받은 한인 1, 2세들의 신학교육을 감당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에 소명 받은 헌신자를 훈련하는 학교로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적인 학교로 발돋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이 행정적인 면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AABC,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WASC(Western Association Schools and Colleges)와 같은 Accreditation Association에 가입되어야 한다. 학교의 특성을 살려 선교에 주력하면서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월드미션대학교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월드미션대학교는 연합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공동사역을 하여야 한다. 목회자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졸업생들에게는 정해진 기간의 학문훈련을 마치고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목회실습이 모든 졸업생에게 필수과정이다. 이 과정을 위하여 연합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목회임지를 필요로 하는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개척지와 기존 목회지로 파송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 본교 출신 동문 중에서 목회가 궤도에 오르게 될 때, 모교를 위하여 전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로 헌신하기보다는 평신도로서 지역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위하여, 기독교 교육학과를 신설하고 교육전문가와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시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사역자를 동역하게 하므로 지역교회를 학교와 연결시키는 훌륭한 가교역할이 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까지는 재정적인 후원을 동양선교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연합회 전체회원교회와 동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각 회원교회와 동문들은

본 대학의 이사교회가 되어, 이사를 파송하여야 할 것이며, 월드미션대학교 주일을 정하여 지킴으로 학교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월드미션대학교는 동문들과 연합회 회원교회의 지원에 상응하는 목회자 계속교육, 목회학 박사과정, 평신도 지도자 교육, 선교훈련 등 지역교회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해 주어야한다.

다음으로 월드미션대학교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를 학교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인 고정된 교육현장에 피교육자가 찾아오는 방식이 점차로 쇠퇴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에서 수없이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에 이제는 피교육자가 요구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교육을 통하여 월드미션 대학교는 다양한 계층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교육으로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훈련과 계속교육을 함으로 선교사역에 협력할 수 있다. 선교사들이 직접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없는 선교지(교육불모지)에 거주하는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통신교육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세계 여러 곳에 월드미션대학교 분교를 설치할 때도 이 교육방법은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역을 위하여 이번에 건립되는 제2 교육관에는 인터넷과 촬영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2개의 특별 강의실이 준비된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통신 교육방식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역시 학교는 균형 잡힌 전문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먼저는 전임교수를 초빙하는 일이다. 점진적으로 각 분야에 권위자인 전임교수를 임용하여 각 분야에 책임을 지게 하여 학문의 질을 높여야하고, 행정직원들도 전문요원이 되어 교무, 학생, 관리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다. AABC에 가입하게 되면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분야의 전문행정가도 학교에 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더욱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각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여 학교를 여러 면에서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이사장이나 총무이사는 Fund Raising의 전문가가 되어 장, 단기 학교 목표에 필요한 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우리에게는 세계선교의 큰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거인 임동선 총장님을 통하여 씨를 뿌리게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여러 동역자들을 통하여 물을 주게 하시되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당신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6).

제 9회 졸업 특집
www.wmu.edu

2000 월드미션 대학교

평신도 성서대학 안내

월드미션대학교는 LA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평신도의 성서연구와 지도자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평신도 성서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통하여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올바른 성서적 지식과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본 대학은 평신도 사역준비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본 과정을 소개합니다. LA 지역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평신도들의 많은 등록을 바랍니다. (수료 후, 평신도 성서대학 Diploma 수여)

* 특 전
  1. 월드미션대학교 (WMU), 평신도 성서대학 Diploma 수여
  2. WMU 학점혜택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3. 평신도 지도자로 인정

* 이수 과목 : 12과목

1. 봄 학기: 지도력개발, 구약개론, 선교학개론, 한국교회사
2. 여름특강: 크리스챤의 영성생활, 성서해석학, 자녀교육, 은사개발
3. 가을 학기: 신약개론, 실천신학, 기독교 상담, 신학입문

Why not the World?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4629, Fax.(323)466-7840

안용식 목사님과 함께..

대학원장 안용식 교수(Fuller Ph.D,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목사)

본교는 2000년 봄학기를 기점으로 안용식 목사(임마누엘 교회)를 신임 대학원장으로 선출했다. 본지는 신임대학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안용식 목사를 찾아 보았다. 다음은 신임대학원장과 본지 기자인 박 재민 학우간에 나눈 대담을 학술부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박재민 학우: 먼저 신임 대학원장으로써 학교를 섬기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대학원장으로서 각오나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요.

안용식목사: 월드미션대학교가 1989년도에 시작할 때 학교 창립에 깊이 관여를 해서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떠나 있다가 이 번에 대학원장을 맡게 되면서 다시 학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지켜보던 학교에 다시 일하게 되어서 시작할 때 태동부터 있었던 그 감동 또 학교에 대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전임 대학원장님과 그 외 여러분들이 학교를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잘 이어 받아서 좀더 내실 있고 알차게 학교를 이끌어 가고자 생각합니다.

박: 대학원장으로 지금 새롭게 취임하셔서 계시는 동안 학교에 대한 비전과 89년 태동할 때 못 다 이루었던 꿈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 갑자기 대학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구체적으로 많은 계획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LA.의 많은 신학교 또 미국인들이 경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도 이 신학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또 바른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가야 된다고 하는 소명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과정으로 지나가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바른 사역자가 되도록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그 신학공부는 현장인 교회와 연결돼야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 가야하는 면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학교는 세계복음 선교 연합회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이지만 지금까지는 동양선교교회가 중심 되어 학교를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합회가 연합회 차원에서 학교를 돕고 또 학생들이 연합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가 정식으로 신학교 협의회에 인정되도록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저희 신학교가 LA.에 있는 많은 신학교와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가 A.A.B.C 에 가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안: 저희 학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신학교로선 상당히 앞서가는 신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 신학교와의 관계에서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수준에서 더 우리가 발전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도서관의 문제 또 캠퍼스에 관한 시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가 앞으로 점차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민해 온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학교로선 또 짧은 시간 안에서 많이 발전해 오고 있고 또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늦게 출발을 했었서도 한인 신학교로선 최상급의 신학교로 발전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그렇다면 저희 학교가 다른 한인 신학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취약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강사진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도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민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동양선교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고 또한 동양성교교회를 30년 동안 키워오신 임동선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경륜과 학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아 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월드미션대학교가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산하에 있어서 이 세계복음 선교 연합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 할 수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졸업생들이 세계 곳곳에 파송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의 범위가 그리 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연합회와 관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해외에 떨어져 있는 많은 연합회 회원교회들, 또 LA에 여러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신학교를 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연합회에 있는 교회, 출신분들 또 우리 신학생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학교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는 초교파이어서 꼭 이 연합회가 아닌 다른 교단이나 또 다른 교파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미주 성결교회와 협력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 학교의 장점이면서 또 일터를 많이 갖게 해 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돌아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그 사역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절을 받고 떠나야 했었을 때,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참는 것이 심해서 생니가 빠지는 그런 경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

고 보니까 꼭 참기만 한다고 해결되기보다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잘 치료받고 해결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몇 년 후에 하와이에서 내적으로 치료를 받는 시간들을 주셔서 치료받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어려웠던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헤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사역하시면서 가장 보람있던 일들은 어떤 것이있었습니까?

안: 역시 목사로써 또 때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써 가장 마음에 남고 기억나는 것은 교인들 한명 한명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믿음이 성숙해져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일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힘있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때 갖는 보람이 있기에 때론 힘들어도 이겨 나가면서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존경하시고 또 목사님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안: 제가 어렸을 땐 공주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차보근목사님께 은혜 받았던 것이 제가 헌신하게 된 동기가 되었구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서울 신학대학의 은사이신 이상훈 박사님이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는 제가 임동선목사님 밑에서 14년 반동안 모시면서 그 목사님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힘써 증거 하시는 모습들이 제게 깊이 각인되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돕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박: 신학 선배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안: 첫째, 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 다음은 목회자로서 영혼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의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기의 프로페셔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교회에 보면 오랜 신앙 생활하신 성도분들이 성경적이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생들이 여러 학문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통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갖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교 오기 전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상 신학생이 되면 과제를 하느라고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시간들을 많이 못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 자신이 젖어들고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무장을 해야하지만 지도자로써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서당에서 보면 어떤 학년이 지나면 책을 띠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띠었다, 시경을 띠었다." 하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통달을 했다고 할 만큼 깊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전체적으로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해 신학교에서 가르쳐 볼 때, 많은 신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성경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부할 때는 공부에 몰두하여야 합니다.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딱하신 분

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이해는 해도 그것이 공부를 충실히 못하는 구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중대하기 때문에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나고 막상 사역 현장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시절에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또 과제에 충실 할 수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미국에 소제한 한인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씁니까?....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안: 이민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사회적으로 상처가 많기에 그 만큼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을 가지고, 또 때로는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많아서 교회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말씀과 사랑의 품을 가지지 않고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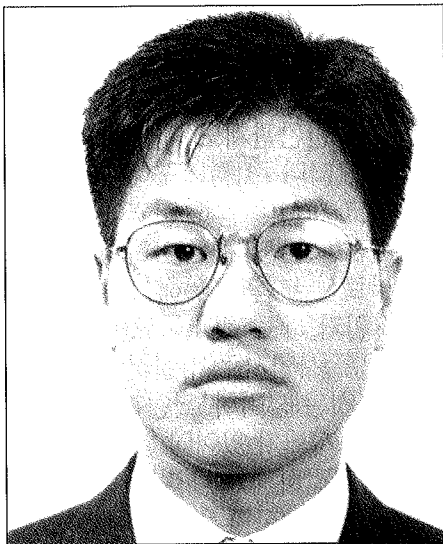
그러나 이민교회에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곳에 정착해 있고 안주해 있는 사람보다는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익숙해 있는 사회가 아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여러 인종과 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민사회를 통해서 세계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훈련을 나름대로 시켜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때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선교에 쓰시려는 큰 비전 가운데 세워 가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과 기대하시는 말씀이 계시다면은?

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훈련시키실 때 보면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안일하게 훈련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도 어렵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편안하게 쉽게 하려기 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사역자로서 일하려고 한다면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데 정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일에 삶을 드려서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또 심지어는 굶어도 헌신하는 절대적으로 헌신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각오와 다짐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 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며, 양떼도 맡겨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갔을 때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공부를 하는 동안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지나며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쉬운 것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고 철저히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헤럴드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
(Reading Scripture by Scripture?)

편요한 교수
(본교 구약학 교수)

누가복음 10:25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아와 묻기를,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eternal life)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그에게 "성경(Torah-Scripture)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라고 되묻는다. 예수는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하는 방법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성서해석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reading scripture by scripture)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피슈뱅(Fishbane)은 그의 유명한 저서 "고대 이스라엘의 성서 해석(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1985)" 이라는 책에서 성경은 온통 성경에 대한 성경해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성서 해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문간의 주석"(inner-biblical exegesis)을 제안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본문으로 본문을 해석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세5경의 많은 법들은 예언서(prophets)와 성문서(writings)의 본문들로 더 잘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r vice versa).

비슷한 관점에서 보야린(Boyarin)이라는 학자는 성경 안의 수 많은 본문들이 이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그의 저서(Intertextuality and reading of midrash, 1990)에서 납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성경의 역대상하는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 역대상하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부분에 놓인 것을 아는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성경을 성경으로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클레몬트 대학의 샌더스(Sanders) 교수와 그의 연구를 논해야 할 것이다.

샌더스는 그의 저서 "성스러운 이야기에서 성스러운 본문으로(From Sacred Story to Sacred Text)"에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삶에 적용할만한(adaptable for life) 것들이었고, 그러기에 성서 안의 신앙 공동체(believing community)에 의해 끊임없이 적용되어 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말씀이 적용되고 전해지는 단계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재해석(re-interpretation/re-signification)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 해석자나 설교자의 역할은 바로 성경 도처에 감춰진 수많은 성서의 해석을 역사적 상황을 잘 고려해 드러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샌더스는 성경의 본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모양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5장에 가면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면, 창세기 1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리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는 아담과 하와 개인만이 아니요, 인류 전체가 아니던가! (히브리어의 아담이 아담 개인을 가리키는 동시에 인류를 지칭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열왕기하 21장을 눈여겨 보았는가? 옛적 유다는 의롭지 못했던 왕 므낫세로 인해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사게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이후 요시아왕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고: 열왕기하 22-23),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바빌론의 손에 넘기신다. 그런데, 그렇게 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if he returns to God),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가? 왜 이러한 질문이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쯤 해보았다면, 역대하 33:13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의 기도 내용이 궁금하다면 외경으로 가 므낫세의 기도를 읽어보자. 얼마나 아름답고 그의 중심이 드러난 기도인가!

그러나, 샌더스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Canon and Community, 1984).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7-24의 천국잔치는 신명기 20장의 하나님의 전쟁(Holy War)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잘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예외일수 있는 조건들이 누가복음에서 선택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이 끝난 이후 승리의 잔치가 승리자들을 위한 잔치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또한 전쟁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에 잔치에 참여할 것을 너무 쉽게 거절하고 만다. 그러나 이에 주인이 심히 노하여 초대받지 않은 자들로 잔치 홀을 가득 채울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라.

잠깐!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보자.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잔치가 소개되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했으며,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의 잔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국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선택되고 초대된 사람들은 이러한 잔치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절한다. 바로 이때, 전쟁도 치르지 않았던, 가난한자, 절름발이, 소경, 앉은뱅이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지만 누가복음 15:11-32의 말씀은 신명기 21:18-21을 통해 더 잘 이해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명기 21:18-21은 술 취하고 방탕한 길에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아들이 있거든, 죽을 때까지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자라도 돌이킨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왜 이러한 질문이 없겠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누가복음은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가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의 은총의 깊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감히 값싼 은총이라고 말하랴!

성경으로 또 다른 성경을 해석(reading text by text)할 때, 또는 한 본문으로 또 다른 본문을 해석할 때, 결코 한 본문은 다른 본문의 말씀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한 쪽의 본문은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고, 삶에 적용할 만하게 한다.

그런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도 최소한의 기준들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본문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한 본문이 다른 본문을 인용(Quotation)하고 있다면 아마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는 한 본문이 다른 본문보다 시대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시대적으로 뒤의 본문이 앞선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셋째는 두 본문간의 주제나 내용이 유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넷째는 두 본문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러한 두 본문간의 연결이 시대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두 본문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양적으로 많아야 두 본문의 연결이 필연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본문을 또 다른 본문으로 이해했을 때 본문이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Yale 대학의 Hays의 저서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1989]를 참고하라).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해석은 혼돈과 공허로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O.J. Simpson 형사 재판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가? 우연히도

양쪽이 모두 다른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럼, 이러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reading scripture by scripture)을 가지고, 욥기 38-41장의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알다시피, 본문은 폭풍우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responsa divina)이다. 이 본문을 읽노라면 수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창조에 관해 서라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묘사한 것보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찐데 (욥기 5, 9, 12, 26, etc), 왜 하나님은 3시간 이상 창조에 관한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시고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무시하고 욥에게만 대답하시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독일의 성서학자 폰라드(Von Rad)는 그의 논문 "Job xxxviii and Ancient Egyptian Wisdom"(1955)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욥기 38-41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물들을 교육(education)을 목적으로 마치 도서관의 목록(catalogue)처럼 잘 정리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형태의 목록이 이집트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에게 욥기 38-41장의 본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왜 우리는 이집트의 문헌으로 가야만 하는가를 묻고 싶고, 이집트 문헌이 욥기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되묻고 싶어진다. 성경이 제기하는 질문은 성경의 본문으로 더 깊이 더 들어가야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욥기 38-41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쓴 Lundberg ("So That Hidden Thing May Be Brought To Light," 1995)은 하나님의 응답이 욥기의 모든 부분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대단히 사려 깊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이 욥이 제기한 문제에만 대답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을 간과할 뿐 아니라, 본문이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녀가 애써 연구한 연구의 열매를 그녀 스스로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38:1, 40:1, 6에 하나님의 응답이 욥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자!)

그렇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혹은 본문을 본문으로 해석하려는 필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인가? 필자의 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욥기 38-41장)은 욥의 애가(욥기 3장)를 통해서 해석될 때 가장 깊이 있게 잘 이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욥의 슬픈 노래(욥기3장:Job's Lament)를 통해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는 논제에는 타당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성경의 본문이 세 번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욥에 대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조: 38:1, 40:1, 6). 그렇다면, 우리는 욥이 어떠한 물음을 하나님께 던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를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욥기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없이 세밀하게 읽노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욥기 3장이 제기한 물음들에 대한 답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필자의 논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본문의 정황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욥기 3장은 욥기의 운문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운문의 끝이다. 포괄법(inclusio)은 고도의 문학적 기교다. 왜 우리는 욥기 1-2장과 42장이 산문으로써 이러한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욥기 전체의 95%가 넘는 운문을 열고 닫는 유사한 문학적 기교는 간과하고 있는가! 또한 욥기 3장과 욥기 38-41장의 두 본문 안에 담겨진 중심주제와 표현법 그리고 다양한 어구 등은 이 두 본문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 (참고: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1985).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본문들은 창조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욥기 3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창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에게 되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욥기 3장의 욥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하나 뒤흔들어 놓고 있다면, 그 뒤흔들어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일이 지적하시고, 세우시며, 본래의 창조와 질서의 자리로 돌려 놓으시고 계신다 (참고: 이사야 40-55장).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당연히 생각되어져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 눈 앞에서 기이하고도 오묘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 하나님의 세계가 이토록 기이하고 오묘하였던가!

자 그렇다면, 욥기 3장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그토록 세세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있는 걸까?

우선 짚고 넘어가자. 욥기 3장은 추상적인 욥의 고난

(suffering)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난, 곤고, 번뇌, 길이 아득한 사람, 탄식, 앓는 것, 두려움이 임하고, 무서움, 평안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갑작스레 욥에게 닥쳐온 재난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 왜 이런 재난이 욥에게 임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임했을까? 한번쯤 가져본 우리 모두의 신앙의 물음들이 아니던가! 또한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었던 욥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욥기 3장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계, 바로 혼돈과 공허의 세계로 돌아가 그곳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만 있다면...

욥기 3장의 저주와 요동치는 절규는 바로 욥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창조이전의 우주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다면, 과거 축복과 은총으로 다가왔던 하나님과 또한 그를 갑작스런 재난으로 빠뜨린 현재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서서 괴로워하는 욥의 마음의 상태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의 절규에 잠시 귀를 기울여보자 (저자의 욥기 3:4-9 번역):

4. 어두움이 있으라,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지라,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지라,
5. 유암과 사망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할지라
구름이 그 위에 덮일지라,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할지라,
6.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힐지라,
해의 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지라,
달의 수에 들지 말지라,
7. 그 밤이 적막할지라,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지라,
8. 날을 저주하는 자가 그 밤을 저주할지라,
큰 악어를 격동하는 자가 그 밤을 저주할지라,
9.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워질지라,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말지라,
동틈을 보지 말지라.

욥기 3장의 바로 이 부분을 창세기 1:1-2:4a와 자세히 비교해 보라 (참고: "Jeremiah iv 23-26 and Job iii 3-13: A Recovered Use of the Creation Pattern," VT 21, 1971). 욥기 3장에서 차근차근 어떠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옛적에 혼돈가운데서 불려온 창조의 질서가 하나씩 혼돈의 세계로 되던져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빛의 창조대신 어두움을 초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창조이후 축복과 안식으로 마쳐지는 일곱 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차례차례 비워지고,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창조이전의 잿더미 한가운데서, 욥의 불평과 절규만이 메아리쳐 울린다 (3:13).

욥은 자신의 난 날과 잉태된 밤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부터 물러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잿더미 위에 앉아 부서진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대고 있는 욥에게 지난날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에게 비추고, 하나님이 하늘의 회의를 욥의 장막에서 열기도 했던(29:4b) 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혼돈과 공허 그 한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을 환난의 눈으로 보아야하는 욥의 절규는 얼마나 참담한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계시단 말인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질문이 욥이 던졌던 질문이 아니겠는가?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욥의 절규가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 욥기 4-27장).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욥기 38-41)에 가서야 드디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욥기의 저자는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많은 기존의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왜 간과해 왔을까? 그리고 왜 저마다 각기 다른 저자를 가정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을까? 왜 욥기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고 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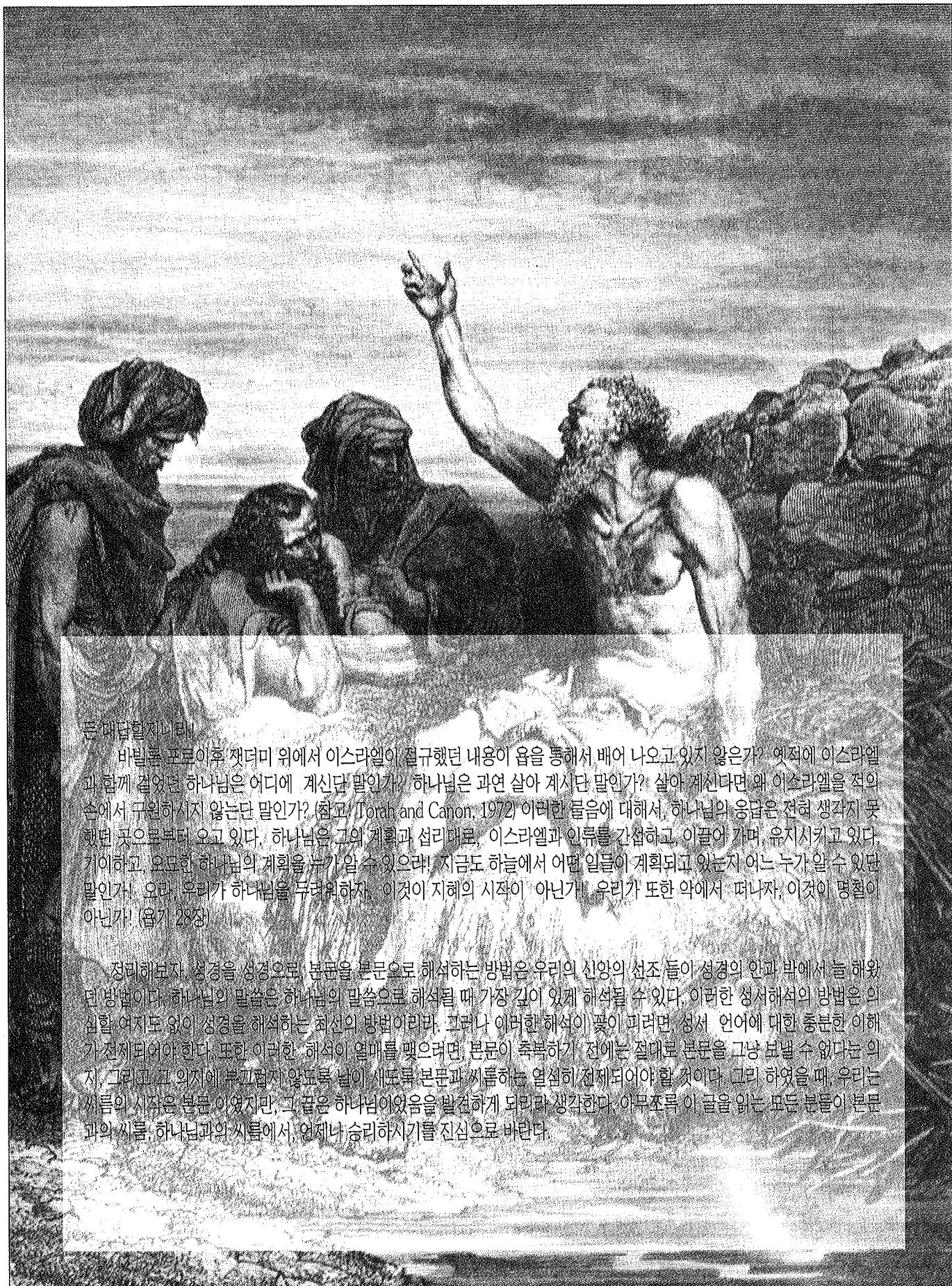
욥기 38-41장의 하나님의 응답은 욥의 의로움에 대해 묻고 있지 않다. 그의 고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욥에게 두 가지 중요한 물음을 던지며 응답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주에 대한 욥의 지혜와 권위의 한계를 지적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Leviathan을 제거할 힘이 없다면(참고: 3:8),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권리도 없음을 밝히고 있다 (Lunberg, 1995).

욥기 38장을 한번 조심스럽게 읽어보자. 무궁무진하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욥을 경이감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창조의 세

계는 신비롭고 오묘하다. 그분이 직접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계는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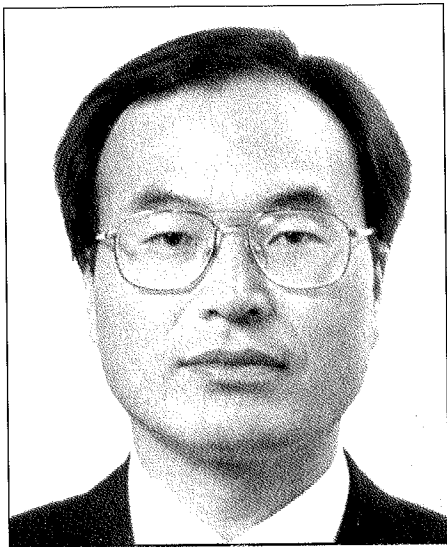
2.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 그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8.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9.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12.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13. 그것으로 땅 끝에 비취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14.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바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6.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17.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18.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9.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20.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21.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 때에 났었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24.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25.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 길을 내었으며
26.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27.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28.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 얼음은 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31.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32. 네가 열 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
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33.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4.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6.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37.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 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38.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욥기 3장을 통해서 이해해 보자. 욥기 3장이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의 잿더미 가운데 앉아 절규하는 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면, 이러한 노력은 욥으로 하여금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고,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오묘한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무지한 자였던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욥으로 하여금 온 우주와 역사를 처음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에 경탄케 하고 있다 (욥기 42:1-6):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았거

든 대답할지니라!

바빌론 포로이후 잿더미 위에서 이스라엘이 절규했던 내용이 욥을 통해서 배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옛적에 이스라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단 말인가? 살아 계신다면 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참고: Torah and Canon, 1972)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오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과 인류를 간섭하고, 이끌어 가며, 유지시키고 있다. 기이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으랴! 지금도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어느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 아닌가! 우리가 또한 악에서 떠나자, 이것이 명철이 아닌가! (욥기 28장)

정리해보자. 성경을 성경으로, 본문을 본문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 들이 성경의 안과 밖에서 늘 해왔던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 가장 깊이 있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성서해석의 방법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최선의 방법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꽃이 피려면, 성서 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열매를 맺으려면, 본문이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본문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이 새도록 본문과 씨름하는 열심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하였을 때, 우리는 씨름의 시작은 본문 이였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본문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양식비평(Form Criticism)에 대한 소고 (小考)

남종성 교수
(본교 학생처장 및 신약학 교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읽는 맛을 알고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고, 앞으로 사역지에 나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 그런데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서 온갖 알아듣기 힘든 신학적 용어들과 비평적 방법론들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적 가치관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된다.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경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를 할까' 하는 것이었다면,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해야하는가'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만 같은 성경구절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해석과 적용이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신학적으로도 한 성경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양한 신학적 사상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더욱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L.A. 다운타운에서 약 2시간 정도 동쪽으로 나가면 넓은 사막을 지나 팜 스프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역에 도달하게 된다. 그 곳에 가면 돌과 바위로 된 큰 산들을 보게 되는데 산의 높은 곳이 되었든 낮은 곳이 되었든 바람이 가장 잘 받는 곳에 풍차(Wind Mills)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수백개의 풍차들이 바람을 받아 때로는 여유있게 때로는 급하게 날개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끝없이 연결된 전기줄을 따라 사람들이 사는 곁으로 가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좀더 동쪽으로 가면 후버 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수력 발전소가 있다. 양쪽에 있는 큰 산을 기둥으로 하고 그 사이를 댐으로 막아 가능하면 물을 많이 모을 수 있게 시설을 해 놓았다. 그렇게 해놓고 그 높은 낙차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 힘은 더 크게 작용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즉 미국 사람들은 전기를 "POWER"로 표현하는데 이 파워가 없이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파워의 근본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발전소에서 왔다. 주로 수력 발전소나, 준사막지역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사람들은 풍력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오는 것이다. 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전기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신학교는 발전소와 같은 곳이다. 신학생들 모두가 필요한 "POWER"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신학교라고 생각을 한

다. 학생들로 하여금 강한 바람도 맞게 하고 낙차 큰 물 덩어리를 맞게도 하는 곳이다. 그러나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에너지화 해서 참으로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신학교인 것이다. 각종 바람이 부는데서 정신없이 여러 가지 바람과 부딪혀 보다가 결국은 그 바람을 이용해 강력한 살아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거센 바람과 물줄기를 잘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오히려 더 거셀수록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만들어 낸 에너지를 통하여 이 세상 요소 요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신학교에 들어와서 거세게 부딪히는 바람과 물결은 역시 성서해석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대부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평적(Critical)이라는 말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의 kritikos가 의미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신약성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비평적 연구 방법들은 이미 보편화되었다. 원전비평 (Textual Criticism), 자료비평 (Source Criticism), 전승비평(Tradition Criticism), 양식비평 (Form Criticism),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 문학비평 (Literary Criticism) 등은 신약성서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방법론들인 것이다. 문제는 이 방법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 양식비평이 역사비평방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여 양식비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월드미션 헤럴드」지의 독자층이 신학생들도 있지만 일반 평신도들도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개관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양식비평(Form Criticism)은 현재 문서화되어 완성되어 있는 복음서 자체보다는 이 복음서들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60년대의 어느 시점에 쓰여졌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 후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양식비평 학자들은 이 미지의 30년 동안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느 한 순간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 책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쓰여지기 이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전의 형태로 내려온 구전전승(Oral Tradition)이라든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쓰여진 어떤 문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서 이전 단계에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양식비평의 선구자는 두 말 할 것 없이 Martin Dibelius와 Rudolf Bultmann이다. 이 두 사람은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전승들이 어떻게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복음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구전으로 내려오던 어떤 내용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를 통과하면서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계속 전승되어 오다가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까지 복음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Bultmann은 막 9:2-8(마 17:1-8; 눅 9:28-36)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은 원래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인데, 이 내용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하나의 구전형태의 양식을 갖추고 내려오다가 복음서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세 복음서가 비슷하게 진술하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이 구전을 기초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똑같은 예를 막 2:18-22(마 9:14-17; 눅 5:33-39)의 금식에 대한 논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금식에 대한 논쟁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해 오다가 현재의 복음서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양식비평 학자들의 생각이다.

양식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서 안에는 여러 가지의 양식을 볼 수가 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로는 예수님의 선언문 이야기(pronounceme-nt stories), 경구(aphorism), 기적 이야기(miracle stories), 비유(parables), 수난이야기(passion narrative) 등이 있다. 선언문 이야기란 예수님께서 어떤 정황(context)에서 짧게 이야기하신 말씀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다가 시장하여 이삭을 자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

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3-28)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여기에서 정황(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과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힐문하는 부분이며, 예수님의 선언문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막 2:27-28의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다.

경구(아포리즘)는 일종의 격언 또는 속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아포리즘은 좀더 참신하고 생생하며 도발적이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말에서 경구라는 말이 격언 또는 속담과 혼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그냥 '아포리즘'(aphorism)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선언문 이야기와 아포리즘을 같은 범주에 넣기도 한다. 그러나 구태여 구별한다면, 아포리즘의 특색은 예수님의 선언문과 같이 짧은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지만 그 이야기의 정황(context)에 대한 설명이 없이 순발력있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하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아포리즘은 그의 말씀들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당시의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도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마 23:24),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막 10:24),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 6:3) 등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아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서들 속에는 이런 아포리즘이 많이 있으며 양식비평 학자들은 이 아포리즘이야말로 예수님의 육성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통로라고 말을 한다.

기적 이야기(miracle stories)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여러 갈래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것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들)에 의해 비교적 일정한 틀을 갖추어 보존되게 되고, 이것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복음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구전전승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기적 이야기도 일반적인 틀이 있다고 본다. 즉 어떤 상황의 불가능성이 묘사되고(눅 5:12a),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오고(눅5:12b), 예수께서 반응을 하시되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기적적인 치료도 하시며(눅5:13),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예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며(눅 5:14-15), 이 기적에 대하여 군중들이 놀라거나(막1:27),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레이터(복음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3인칭의 화자)에 의해 내려짐으로 끝을 맺게된다. 양식비평 학자들(대표적인 학자는 Paul J. Achtemeier)은 복음서 안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들을 분석하고 이 기적 이야기들이 복음서 이전에 어떤 수집물(들)의 형태로 전해 내려왔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기적 이야기의 삶의 정황 (Sitz im Leben, life situation)을 연구한 결과, 기적 이야기들은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세계의 신들(gods)이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miracle workers)보다 예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기적 이야기들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벨리우스나 불트만은 기적 이야기들이 포교(propaganda)와 변증(apologetic)의 목적으로 기적 이야기가 사용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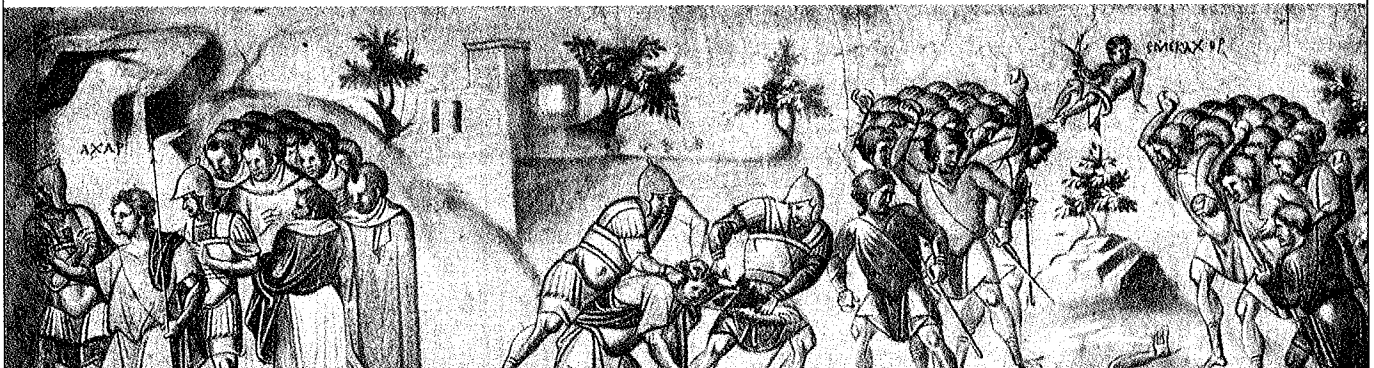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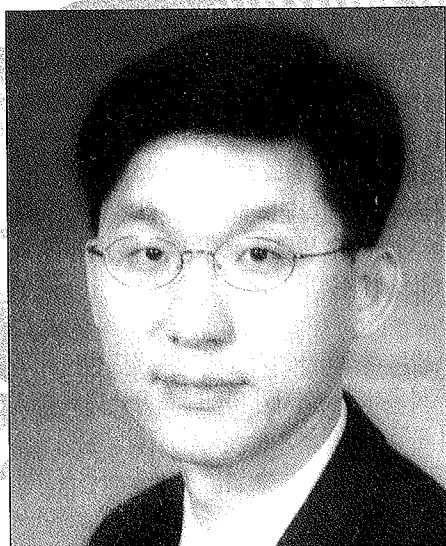
비유(parable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삶의 일상을 소재로 하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유에 대한 연구는 신약의 연구와 더불어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는데, 독일을 중심한 유럽대륙의 역사 비평적 방법과 미국을 중심한 북미 대륙의 문학 비평적 방법이 비유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는 John Dominic Crossan이다). 비유연구에 있어 역사비평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역시 양식비평이다. 문학비평은 역사 비평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북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성서연구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어떤 면에서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형성된 성경본문(Text)에 관심을 갖되 문학적인 분석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비평도 더 세분되게 나누어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비유에 대한 양식비평 학자들의 견해는 비유도 기적 이야기와 같이 어떤 수집물(들)의 형태로 구전되어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비유들도 초기의 어떤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용과 형태가 형성되었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다른 많은 비유들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의 필요와 그들의 신학적 필요에 의해 많은 비유들 중에 특별히 뽑힌 것들이 있고 이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삶의 정황에 따라 재해석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유가 어떤 수집물의 형태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의 비유군을 통하여 비유가 어떤 형태로든지 모아져서 전승되어 왔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마13장이나 막4장의 비유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말씀하던 비유들이 어떤 공동체에 의해

수집되어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지금의 복음서 안에 있는 형태로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수난 이야기(passion narrative)는 복음서들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수난 이야기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시점까지의 이야기이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6장-27장, 마가복음 14장-15장, 누가복음 22장-23장에 기록이 되어있다. 이렇게 길게 쓰여진 수난 이야기(수난 사화)는 마가복음 이전에 하나의 긴 이야기 형태로 보존되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르트 타이센(Gerd Theissen)같은 교수는 이 수난사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원하여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복음서들 속에 들어왔다고 주장을 한다. 타이센은 프로소포그래피(prosopography)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적 설득력있게 수난사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만일 이 수난사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면 기독교 가장 초기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지만 양식비평에 대한 중요한 개념과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소개한 것 외에 학자들에 따라 더 많은 양식(forms) 또는 형태들(shapes)이 복음서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식비평에 대한 학문적 영역도 대단히 넓어서 이 짧은 글 안에 다 소개할 수도 없다. 다만 이 글을 통해서 양식비평의 중요성과 양식비평 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 하고자 하며 어떻게 학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개관하는데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양식비평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기원을 밝히며 신약 성서 안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편집비평과 더불어 이 양식비평의 사용은 신약 성서연구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양식비평을 비롯한 역사 비평적 방법은 장점에 못지 않게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유념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본 양식비평은 그것이 말하는 기본적인 전제, 즉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복음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어떤 구전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음서들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전승되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서들을 통하여 그 이전의 구전전승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복원할 만큼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든 학자들이 자신들이 믿기에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가설로부터 시작하여 논리들을 전개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하지만 그 어느 것도 틀림없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학자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을 때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 그것에 대해 매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짜릿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론의 기초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성서를 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학문적 성향은 무엇인가?' 등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어떤 부분은 끝까지 해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비록 신학의 수업이 어떤 면에서는 건조하고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 신학의 훈련과정은 우리 사역자들이 꼭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인 것이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담하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거센 바람과 물이 발전소를 통하여 오히려 유용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신학적인 물결(조류)들과 동향(바람)들을 잘 소화해서 유용한 에너지로 만드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지도자와 은사: 그 분석과 개발

신선묵 목사
(본교 사무처장 및 리더십 교수)

1. 서론: 은사의 분석과 개발의 중요성

옛날 어느 마을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살고있었다. 하루하루 낳아주는 금 알로 그 농부와 가족들은 비교적 잘 살수가 있었다. 하지만 하루는 그 농부의 마음에 욕심과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저 거위를 잡아 그 속에 든 황금 알들을 팔아 사업을 시작하면 한꺼번에 큰돈을 벌 수가 있을 거야"하고는 그 거위의 목을 비틀고 배를 갈랐다. 하지만 거위의 배속에 황금 알은 없었다. 이제는 황금 알을 낳아주던 거위가 없어져 그 농부는 전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았다는 우화를 우리는 들어보았다.

우리 모든 기독교 지도자는 사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앞서 사역에 비정상적으로 매달리게 되어 사역의 주체가 되는 자신을 바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로 잘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지도자 자신을 통하여 역사 하시기 때문이다. 사역의 열매가 마치 거위가 난 알과 같다면 우리 사역 자는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만을 위하여 사역자 자신을 바로 돌보는데 소홀히 한다면 이 우화 속의 농부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역의 주체가 되는 지도자 자신을 바로 건강히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주어야한다.

그러면 지도자 자신을 건강히 보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한 지도자의 존재(BEING)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관리해야한다.

첫째, 지도자는 자신의 개성(Personality)을 건강하게 보존해야한다. 개성에는 어떤 타입들이 있고 또 어떻게 그 개성들을 조화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 삶과 사역을 보면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다르다. 어떤 이는 운동으로 어떤 이는 친구와 어울려, 어떤 이는 독서와 잠으로 어떤 이는 분출함으로. . . 개성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개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도자는 자신의 인격(Character)을 계속하여 다듬고 성숙시켜야한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인격 속에 맺어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가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일들은 지도자 자신이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자 종착역이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남에게 전하고 나는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간 구가

우리 기독 지도자들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가치관(Value)을 정립해 가야한다. 소위 말해서 철학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정립하고 제시할 줄 알아야한다. 요사이 목회철학 혹은 사역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한다. 우리가 철학을 남에게서 많이 배우지만 결국 나의 철학을 정립해야한다. 나는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왜하는 것인가의 문제들을 주관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혹은 은사(Gifts)를 바로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은사는 우리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사역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사용 개발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제는 지도자가 자신의 은사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들을 알아보겠다. 무엇을 분석하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이해가 필요하다. 은사에 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실행되어져왔고 또 현재도 실행되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은사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겠다.

1) 은사의 조합(Giftedness Set)

우리는 영적 은사와 더불어 선천적인 능력과 습득한 기술도 함께 생각해야한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에 영적인 은사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19가지의 영적인 은사의 항목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삶 속에 보면 꼭 그 항목에 들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신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습득한 어떤 기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지도자나 운동 선수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선교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에 영적인 은사와 더불어 우리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 혹

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 등도 함께 생각해야한다. "은사 조합(Giftedness Set)"이란 한 지도자가 발전시키고 사역현장에서 사용해야할 "선천적 능력(Natural Abilities)," "습득된 기술(Acquired Skills)," "영적인 은사(Spiritual Gifts)"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연적 은사"란 네 가지 종류의 타고난 자질의 조합에 연관된 경향들을 말한다. 즉 머리가 좋다든지, 육체적으로 민첩하여 운동을 잘한다든지, 성격이 좋아 사회적인 관계성이 좋다든지, 혹은 미적인 자질이 뛰어난 것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습득된 기술"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사람들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받은 사역의 기술들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기술과 같은 것 혹은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과 같은 것을 말한다. "영적인 은사"란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신자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은사 조합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것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중요 요소(Focal Element)라고 하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영적인 은사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적 능력이나 습득한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영적 지도자의 경우도 있다.

2) 영적인 은사(Spiritual Gifts)

이 세 가지 은사 조합 중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적인 은사란 하나님께 각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 신자를 통하여 성령이 능력을 주신 사역의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다. 영적인 은사는 신약 성경의 대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에배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제시되어지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설명과 예들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은사의 종류를

아래의 19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은사의 종류와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중요 은사 이름	핵심
교사	설명하는 것
권면	적용하는 것
예언	수정하는 것
사도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함
전도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함
목회	다른 신자들의 성장을 돌봄
지도력	사람들을 비전으로 이끌음
지혜의 말씀	계시된 적용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계시된 지식
믿음	도전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
자비	동감하여 도와 줌
자선	자원을 나누는데 민감함
도움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과 태도
관리	조직체를 잘 돌아가도록 도움
방언	권위있는 말씀의 통로가 됨
방언을 통역	방언을 해석함
영적 분별	진리와 그 근원에 민감함
병고침	치료의 능력의 통로
기적(능력)	증거 하는 능력의 통로

이들 영적인 은사가 각 개인에 있어서 나타날 때 은사가 그 사람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은사는 일시적으로는 지도자에게 나타나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일시적인 은사도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은사를 분석할 때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상용 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분석하고 개발할 의무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은사는 그런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는 다시 세 가지 종류의 은사 군(Gift Cluster)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먼저 "말씀의 은사(Gift of Word)"가 있다. "말씀의 은사"란 하나님이 누구 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영적인 은사들로써 권면, 가르침, 사도, 지도력, 목회, 전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로 "능력의 은사(Gift of Power)"가 있다. "능력의 은사"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인하여 주는 은사로 믿음, 지식의 은사, 영적 분별, 기적, 방언, 병 고침, 예언, 지혜의 은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로 "사랑의 은사(Gift of Love)"가 있다. "사랑의 은사"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재를 보여주는 은사로 자선, 자비, 도움, 목회, 전도, 병 고침, 지혜의 은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가 보듯이 몇몇 가지 은사들은 여러 군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은사 군(Gifts Cluster)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개인이나 기독교 공동체를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세 가지 은사 군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지도자 혹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균형이란 모든 세 가지 은사 군을 동일한 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각 개인마다 혹은 공동체마다 상황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또는 강조하는 은사 군이 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의 은사를 , 혹은 어떤 교회는 능력의 은사를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의 은사를 강조한다. 상황과 각 교회의 특성에 맞게 강조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한 은사군의 강조하면서도 세 가지 은사 군이 모두 인정되고 조화가 될 필요가 있음을 본다. 한 개인의 은사 속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 어떤 지도자는 말씀의 은사 군이 주류를 이루고 또 어떤 지도자는 능력의 은사 군이 주류를 이루기도하고 또 어떤 지도자는 사랑의 은사 군이 주류를 이루기도 한다.

3) 은사 발견 패턴(Giftedness Discovery Pattern)

한 지도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는가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첫째, "적성접근(Like-Attracts-Like)패턴"이다. 이는 잠재적 지도자가 직관적으로 같은 영적 은사를 소유한 지도자에게 매력을 갖는다.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영적 은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지도자에게 매력을 갖고 이끌림을 당하고 그에게서 보고 배우며 은사를 개발하게 된다. 우리가 주위에 어떤 지도자를 존경하고 이끌리는가를 보면 우리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 둘째로는, "적성반응(Giftedness-Drift)패턴"이다. 잠재적 지도자는 아직 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기의 영적 은사에 맞는 사역 도전과 과업에 직관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쉽게 접근하게 되는 사역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역 등을 보면 우리의 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셋째, "역할은사(Forced Role/Gift Enablement)패턴"이다. 한 지도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잠재적인 은사를 자극하게 되거나 혹은 그 경험을 통하여 그 역할에서 필요한 은사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 것이던지 아니던지 새로운 분야의

사역에 관여하게 되고 사역의 필요에 따라 일하다가 은사를 발견하게나 개발하게 되는 경우이다.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하여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인식하고 개발하게 된다.

한 지도자는 이와 같이 패턴들을 통하여 은사를 인식하고 개발하기도 하지만 평생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발전 패턴도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지도자는 1. 사역경험을 통하여, 2.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3. 그 은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4.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효과적이 되고, 5. 더욱 더 많은 사역경험 혹은 새로운 사역 역할을 통하여, 6. 그 새로운 사역 역할이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을 자극하게 되고, 7.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가지게 되고 8. 자신의 주된 은사 군을 발견하게 되고, 9. 은사의 수렴에 이르게 된다.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은사의 분석과 개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은사에 연관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한 지도자의 은사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또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살펴보겠다.

1) 은사를 분석하는 방법

지도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를 분석하여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Venn Diagram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당신의 자료를 모아라: 당신은 당신의 은사조합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고 있어야한다. 그들을 여기에 적어라. 당신의 선천적 능력과 습득한 기술을 잘 요약하라.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자료가 많이 출간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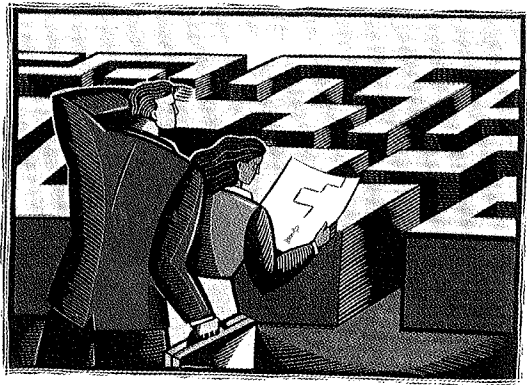
당신의 선천적 능력:
당신의 습득한 기술:
당신의 영적인 은사:
(항시 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만 기록하라):

2. 중요 요소: 당신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당신에게 있어서 선천적 능력과, 습득한 기술 그리고 영적인 은사 중에 중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던지 그것을 제일 크게 그려라. 때때로 두 가지의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3. 각 부분의 관계와 중요성을 결정하라: 중요 요소로부터 시작하라. 각 구성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하라. 만일 영적 은사가 중요 요소이면 당신의 영적 은사 리스트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 가장 크게 그려라. 그리고 다른 은사가 그것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려라. 당신이 두 가지 심볼이 겹칠 때 그 겹친 구역은 겹치는 것들이 함께 작동함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다른 두 요소로 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라.

4. Venn Diagram을 그리기 시작하라{{. Venn Diagram은 항목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은사의 Venn Diagram은 심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은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어떤 요소가 주된 은사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은사인지를 밝힌다. 요소간에 겹침과 겹치지 않음도 보인다. 이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준다.

1) 상징들: 우리는 은사를 보이기 위하여 세 가지 심벌을 사용한다. 사각형은 자연적 재능을, 삼각형은 습득한 기술을 그리고 타원형은 영적인 은사를 상징한다.
2) 크기: 심벌의 크기는 중요성을 나타낸다. 크기가 클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다. 작을수록 덜 중요한 것이다.
3) 공간: 공간이 Venn Diagram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Diagram에서 심벌들을 위치시킬 때 심벌간에 상관 관계를 보인다. 두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때 그들은 그 관계를 보이기 위하여 위치될 수가 있다. 겹치는 것은 두 요소가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큰 것이고 그림의 중앙에 위치한다.
4) 지금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은사들의 구성분자들 사이에 중요한 정도와 상관관계를 정하였을 것이다. 그리기 시

작하라. 중요한 요소부터 시작하라. 중요한 것을 가장 크게 하고 중앙에 위치시켜라. 그리고 당신이 상관간계와 중요도를 봄에 따라 다른 구성분자로 가라. 두세 번이 걸리므로 처음에는 연필을 사용하라.

5. 피드백을 받아라: 초안을 그린 다음에 당신이 잘 알고 또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들과 당신 자신의 Venn Diagram을 나눠라. 당신이 그린 각 구성 분자들을 설명하고 그들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을 설명해 보라. 피드백을 받아라. 당신이 그것에 대하여 말할 때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것을 고치고 싶을 것이다.

6. 당신의 마지막 그림을 그려라 : 당신이 약간의 피드백을 받은 다음 당신의 최종 본을 그려라. 은사 개발이 고정적이 아님을 기억하라. 당신의 은사는 당신이 성장하고 성숙해감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자주 당신의 은사조합을 그리고 수정해가라.

2) 은사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지도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가질 수가 있다.

1.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능력을 분출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하여도 확신이 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은사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능력이 분출된다.

3.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 좋은 자료가 된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 Being)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개성'과 '은사'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을 때 우리는 효과적인

4. 우리가 자라나는 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다. 우리가 새로이 자라나는 지도자들을 도울 때 우리가 무조건 돕겠다고 욕심을 내어서도 안되고 또 관심을 주지 않고 내버려두어도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에 따라 도울 수 있는 영역과 한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갖지 못한 은사를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지도자에게 연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5. 우리 자신이 사역에서 가질 수 있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모든 은사를 가질 수는 없고 또 우리의 사역 지는 다양한 은사를 요구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의 장점을 살리고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갖지 못하였지만 필요한 은사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발견하여 그 은사를 소유한 사람과 팀으로 일하던지 스텝으로 도움을 요청함으로 우리는 균형 있는 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잇는 것이다.

6.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된 역할"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발견하고 집중해야한다. 우리가 집중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역할 저 역할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잘 맞는 역할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주된 역할"이라고 한다. 이 역할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바로 이해해야한다. 자신의 은사를 잘 이해하고 그 은사에 맞는 역할을 할 때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

은사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개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번에 할 수가 없다. 이는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은사의 분석 위에서 적극적으로 은사를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도자들을 기독교 사역으로 부르실 때 그는 그들을 그들의 온전한 잠재성(Potentiality)을 이룰 때까지 발전시키기를 의도하신다. 사역에 있는 우리

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과정 속에서 발전 시키실 때에 우리는 계속하여 성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

4. 결론과 적용: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상의 글에서 은사 분석과 개발의 중요성과 개념들 그리고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삶에서 혹은 목회현장 과 조직 속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가를 살펴보겠다.

1) 개인적인 적용

이상의 은사에 대한 이해는 지도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한다. 첫째, 자신의 Venn Diagram을 그릴수가 있다. 그리고 장점을 살려서 계속 발전해 갈 수가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당신의 중요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둘째로 은사 조합의 세 가지 요소 즉 선천적 능력, 습득한 기술, 그리고 영적인 은사의 개념들을 통하여 당신이 지도하는 사람들의 중요 요소를 볼 수 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이해할 때 각 은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넷째는 당신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수가 있다. 다섯째는 말씀, 능력, 그리고 사랑 군 사이에 균형이 필요함을 기억하라. 개인이건 교회이건 균형 있는 은사의 발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은사개발의 패턴을 이해함으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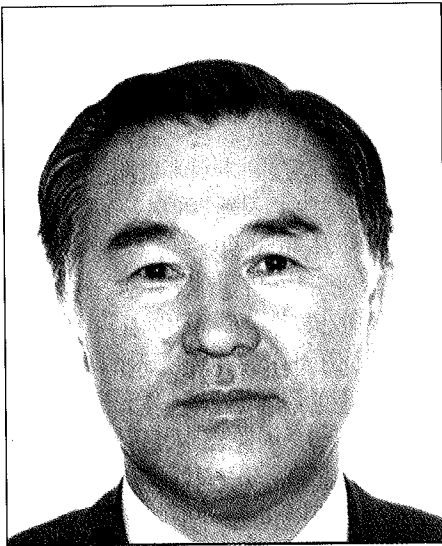
2) 목회현장에서의 적용

이상의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도자는 목회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첫째, 사람들이 알건 모른 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둘째, 경험 속에서 은사가 출현하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인정하여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어라. 셋째, 지도자들이 더욱 더 중요한 일을 해감에 따라 그들에게 은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라. 넷째, 당신 자신이 은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조직의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접근

이상의 은사에 대한 이해는 조직의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한다.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은사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둘째는 은사를 가르칠 수가 있다. 셋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때에 당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은사를 개발하도록 도울 수가 있다. 넷째, 사람들을 적소에 배치할 수가 있다.

오늘날 은사에 대한 이해와 분석과 개발이 개인의 차원이건 목회현장의 차원이던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은사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적절한 것이며 우리 교회의 본질에 연관된 문제이다.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왜나하면 이미 서론에서 밝혔듯이 사역은 사람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존재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삶에 걸쳐서 관심을 주고 노력해야하는 분야이고 또 우리는 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순간 적인 수단이나 유행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또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써의 의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효과적인 이민 목회"

고남철 교수
(본교 조직신학 교수)

21세기가 되면서 이민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따라서 이민 목회의 패턴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 온 자들의 횟수가 점점 길어지고 거의 미국화 된 2세들이 성년이 되었고 1세들도 점점 미국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이민 목회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민 목회란 한인 이민 목회를 말한다. 21세기의 한인 이민 목회는 한국식의 카피여서도 안되고 미국식이어서도 안될 것으로 본다. 이민 한인 사회는 그들대로의 독특한 문화가 있으므로 그 문화에 걸맞은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효과적인 이민 목회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1. "따뜻한 교회 보다 따뜻한 친구가 되자"

요사이 한국 신문, 한국 T.V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 참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이다.LA의 리틀 도쿄에 사는 일본인들이 일본의 일본인들 보다 20년이나 뒤떨어 졌다고 한다. 미국을 모르고 일본을 떠나 올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한인들은 어떤가? 한국 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앞서가는 한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한인 교회는 따뜻한 교회보다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미국은 참으로 고독하다. 미국인들은 친구도, 이웃도 별로 없다. 있다해도 소수이다. 그래서 Vane Packard는 미국을 "A nation of the strangers", 나그네들의 나라라고 했다. 그는 덧붙여서 세계에서 제일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미국에 와 사는 우리 한인들도 미국인들처럼 외로움, 실망감, 무력감, 두려움, 공포감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러치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 교회 목회는 특별히 한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라야 할 것이다. 미국 교회의 경우 왜 교회를 떠나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75%가 교회의 어느 누구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물었더니 1) 설교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2) 교회가 따뜻하지 않다 3) 교회가 돈을 강조한다 4) 교회 교육이 부실하다 라고 말했다.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Rick Warren 목사는 "작은 교회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주 한인 교회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라야 할 것이다.

목회에 성공하신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설교가 70% 되지, 한국 교회는 역시 설교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Loving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

생각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설교도 잘해야 하지만 한인 교회는 미국 목회자의 견해처럼 사랑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면 따뜻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민 교회는 포근한 고향처럼 어떤 사람도 안아 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사랑의 여행 전도" 프로그램을 5주간에 걸쳐 실시했는데 첫 주는 Love in Deed,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표시를 했다. 케이크를 구어서 갖다준다든지, 꽃을 선물하든지 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주는 Love in Writing, 세 사람 이상에게 사랑의 편지를 띄웠다. 셋째 주에는 Love in Speech, 전화로든, 만나서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했다. 당신이 내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넷째 주에는 Love in Meal, 새신자, 소외된 성도, 불신자 친구 등과 식사를 같이 나누며 사랑의 친교를 가졌다. 다섯째 주에는 Love in Journey,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친구를 많이 사귀고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교회도 부흥되었다고 한다. 또한 친구를 사귀는 프로그램으로 수양회를 자주 갔다. 3-4일간의 수양회 생활은 주일에 교회에서 1년 동안 만나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교회에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Bill M. Sullivan은 말하고 있다. "기억하라. 사람은 Friendly Church를 찾는 게 아니라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21세기를 향한 미주 한인 교회, 따뜻한 교회보다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2. 목회자의 리더쉽, 성공을 위한 것인가, 충성을 위한 것인가?

최근 한인 목회자들 보다 미국 목회자들의 탈진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교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담임 목사의 재임 기간이 4년에서 7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든지 목회를 그만 두고 있다. 5명중 4명, 즉 80%의 목회자들이 현재 목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George Barna는 "목사들은 미국 내에 좌절된 그룹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London과 Wiseman이 쓴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Pastors at Risk) 이라는 책에서 "40%의 목사가 지난 3개월 동안 목사직을 그만 두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되어 가면서 목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거 해 주고 있다. 이것이 미국 교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한인 이민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선 목회 상에서 맥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다. 미국 교회의 경우 신자들의 복수 교회 출석이 계속 늘고 있다. 한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오늘날의 신자들, 특히 베이비 부머나 베이비 바스터 세대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 감동적인 설교, 좋은 교육 프로그램, 멋있는 음악, 역동적인 봉사, 편리한 주차장, 다양한 프로그램, 큰 교회 등을 보고 교회를 선택한다.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고 한국 교회 신자 역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잘 훈련시켜 이제 교회 봉사할 만 하면 떠난다. 직업상 떠난다든지, 한국으로 이사한다든지, 다른 교회로 옮긴다. 1년에 미국 인구의 20%가 이동하고 있다. 한인도 마찬가지이다. 점점 단기간의 인간 관계(Short term), 단기간의 봉사, 모든 것이 단 기간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은 이미 밖에서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봉사 활동, 더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다.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 좋은 복음 성가, 찬송가 집이 신자 가정마다 가득가득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웬만한 설교, 찬양 가지고는 감동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과 기도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국 교회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자의 44%가 목사에게 A학점을 주고, 33%가 B학점, 4%만이 F학점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담임 목회자들은 적어도 77%가 B학점 이상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그만하면 재미있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를 더 원하고 있는 시대이다.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고 목사가 탈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Pastor, we need you, "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은 정말 절대로 필요합니다"라는 뜻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심은 이 세상 어디엔가 목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No.1 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자. 지도자는 이기려하지 않는다. 평신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누군가

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왕이 되는 것 보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민 교회 지도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칭찬(Appreciation), 인정(Recognition), 격려(Encouragement)가 그것이다. 성도들의 봉사에 칭찬을 아끼지 말자. 성도들의 수고를 늘 인정해 주자.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성도들의 일한 것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말자. 성도들로부터 사랑이나 존경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목회를 해 나가야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고 진실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 목회는 특수한 상황이다. 한국에서처럼 기대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왔기 때문에 한국적 생각을 항상 갖기가 쉬운 것이다.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충성하자.

3. 은퇴한 노인들의 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동안 한국 교회 성장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여자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빼 놓을 수 없다. 한국은 유교 전통 사회였다. 여자들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한국 교회는 집안에 있는 여자들을 교회로 끌어내어 활동하게 했고 교회에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해 주었다. 그들은 주로 전도, 구역 활동, 교회 봉사 등에 열심히 일했다. 여자들의 불붙는 봉사로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점차 성장이 둔화되어 지금은 평지 현상(Plateau) 또는 감소 현상(Declining)을 나타내고 있다. 왜 한국 교회가 둔화되고 있는가? 여러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GNP 개인 소득이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적 번영으로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경원시하게 되었다는 점, 복음의 핵심보다 현세적 가치, 축복과 성공을 강조하므로 어느 정도 부를 누리게 된 지금 기복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던 교회의 메시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점, 교회가 사회 제 분야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부정 불의를 묵인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여자들은 과거처럼 교회에서 시간을 다 바쳐 일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베이비 부머와 베이비 바스터 세대는 여자들이 일하기를 원한다. 과거 보다 점점 부부 맞벌이 시대로 바뀌어 지고 있다. 여자들이 안방에서 교회로가 아니라 안방에서 사회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너도나도 돈벌러 나서고 있다. 자연히 여자들은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인들은 1970년대 보다 1990년대에 와서 자유시간이 더 없어졌다. 1973년도 미국인의 평균 여가 시간은 1주에 26.2시간이었는데 1987년에는 1주에 16.6시간으로 줄어들었다. 1990년대에는 더 줄어들 것이다. 한인 이민 사회에서는 한국에서처럼 한가하게 지내는 여성들이 드물다. 다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교회의 일을 많이 맡길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교회의 눈을 은퇴한 노인(Senior Citizen)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1900년에 평균 수명은 47세였으나 오늘날은 남자 72세 여자가 77세이다. 현재 미국 인구의 12%가 65세 이상이다. 2천년에는 은퇴한 사람의 수가 굉장하게 늘어나서 2025년에는 60세 이상이 10억이 된다. 인구 7명중 1명이 노인이 되는 Older

World가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큰 세상(Larger World), 발전되는 세상(Developing World), 젊은이의 세상(Younger World), 도시 세상(Urban World), 갈등 세상(Conflict World), 정보 세상(Information World) 이 되는데 두드러진 현상은 노인들이 많은 세상이 된다.

미국 인구의 24%가 50세 이상인데 교회 출석의 51%가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회색 현상은(Graying)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 30년간 변함없다. 교회에서는 점점 많아지는 노인 성도들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교회는 은퇴한 노인들을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교회에서의 노인 사역이 자녀 사역 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어느 원로 목사님은 "교계 원로들의 설 자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목사나 장로가 은퇴하였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천국 사업에 큰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옳은 말씀이다. 왜 교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 관심을 돌려야하느냐? 1) 은퇴했어도 아직 건강하다. 요새 65세는 과거 55세와 비슷할 것이다. 2) 시간이 많다. 3) 베이비 부머 세대 보다 충성심이 많다. 4) 교회를 위해 헌신적이다. 5) 신앙 생활을 오래해서 경험이 많다. 6)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은퇴 후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성도님들은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사역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들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민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볼일이다. 교회에서는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천국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4. 200명선을 파격적으로 깨야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미국에 375,000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85%가 200명 미만이다. 그리고 미국 교회 평균 장년 출석은 75명이고 이 숫자를 가장 편안한 숫자로 생각하고 있다. 큰 교회는 225-450명으로 전체의 10%이고 대 교회는 450-700명으로 4%, 그리고 초대형 교회는 700명 이상의 교회로 1%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교회가 다르다 라는 책들이 나왔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 성장 학자들은 교회는 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워맥은(David Womack) 미국 내 교회 패턴 그룹을 50명, 90명, 120명, 180명, 230명, 290명, 400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서 얼마간 성장이 멈추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정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200명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명 선이라 부르고 있다. 설리반(Bill M. Sullivan)은 "200명 선을 깨는 열 단계"(Ten Step to Break 200 Barrier) 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다. 200명 선을 넘어야 비로소 큰 교회로 성장 할 수 있다. 200명 선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200명 선을 깨고 계속 성장 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미주 한인 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큰 교회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큰 믿음의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도전해 보는 것이다. 둘째, 목표를 세운다. 1차적으로 장년 출석 300명을 목표로 해 보자. 그 이하는 낮고 500명 이상은 너무 높다. 기간은 3년이 좋다. 1976년 - 1986년 사이에 성장한 27 교회를 조사 연구해 보았더니 200명 미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300명 이상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가 2-3년 사이에 성장했다고 한다. 27 교회의 성장 햇수는 평균 2.6년이었다. 3년 동안 교회 성장에 총동원하여 추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목사와 성도의 성장은 필수적이다. 300명 이상으로 성장 할 때 목사는 영적, 지적, 인격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100명 교회와 300명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변화와 반대도 꼭 있게 마련이다. 목사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대로 좋은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등등. 목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상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특별히 20-25명의 핵심 멤버들을 선택해서 목회 사역에 참여시키면 더 좋을 것이다. 넷째, 3년 동안 다양하고도 온 성도가 흥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신선함을 주자. 대대적인 방문자들의 날(Giant's Visitor's Day)을 정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몇 주 몇 달 동안 전도하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또 자리 채우기 날(Full Pew Sunday)을 정해서 몇 주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날에 교회의 빈자리를 꽉꽉 채우는 것이다. 다섯째, 목사가 이일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 보다 모든 일에 갑절의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기도도, 설교도, 심방도, 그리고 전도도 지금 보다 배로 더 노력할 때 예상된 목표는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교회 건축이나 큰 교회 구입도 이 기간에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의 이민 교회 성장은 흡수 성장을 하고 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의 성도들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을 큰 교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작은 교회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없다. 반대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빠져나가는 일들도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열심을 다해 노력할 일인 것이다.

5. 21 세기의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Leith Anderson은 "좋은 설교가 아니면 21세기에 생존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웰도"설교는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했다.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다른 일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평이 늘 있게 된다. 반대로 다른 일이 좀 부족해도 설교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다른 부족한 점들이 가리워 진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21세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편적인 것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한다.

성경을 설교한다. 설교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자의 의견이 많지 않은가? 현대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그가 말씀하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사님의 의견보다 성경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 성경 말씀으로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21세기 설교의 우선이 된다.

간단 명료한 설교를 한다. 오늘날에는 듣는데 지쳐 있다. 하루 종일 듣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 와서 듣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설교학자들은 현대인은 20분에서 25분 설교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기야 20분 설교해도 한시간처럼 느껴지는 설교가 있고 한시간 설교했는데 20분처럼 느껴지는 설교도 있다. 재미있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라면 꼭 그런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나 설교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설교자의 유혹은 어떻게 이 설교로 히트할까,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성령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고 만다. 설교의 청중은 성도만이 아니다. 설교자도 설교의 한 청중이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부단히 물으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설교의 관심을 먼저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말이다. 설교자가 은혜 받으면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확신 있는 설교 때문이라고 분석한 일이 있다. 설교는 성령님이 설교자를 통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까지 설교자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삶의 방법을 많이 제시하는 설교를 한다. 베이비 부머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ought to) 보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how to) 의 설교를 좋아한다. 현대인은 웅변식의 설교를 질색한다. ought, should, must 는 옛날 방식이고 앞으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리스챤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 성도들은 만족해한다.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식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한다.

쉽고 생생하게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교한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설교는 쉽게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Rick Warren은 "예수님은 깊이 있는 진리를 단순하게 가르쳤고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설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 속에서 생생하고 신선한 예화를 끄집어내자. 설교를 생활 속으로 끌어서 들여놓고 말씀으로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설교자는 신자들과 동떨어진 꿈 이야기를 하기 쉽다. 저 높은 곳의 이야기만 한다.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생활 속에 부딪히고 연결되는 현장감 있는 설교를 할 때 그들은 '아멘' 하고 응답할 것이다.

필자의 친구가 말씀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목회했더니 말씀 중심일 때는 언제나 부흥했으나 프로그램 중심일 때는 언제나 신자가 늘지 않았다고 간증했다. 설교가 목회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에 목회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민 교회 설교에 충성을 바치는 설교자들이 되자.

6. 전도 우선의 교회가 성장한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한가지 사실만은 확실하다. 교회는 결코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성장을 멈출 때 이미 죽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염원이요, 기도인줄 안다. 교회 성장 원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요, 또 그것들이 어느 환경에나 다 똑 같이 맞는 것이 아니다. 교회 성장은 복합적인 원리가 연결이 될 때 생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성장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는 설교중심의 교회와 상담, 심방 중심의 교회는 평균적으로 평지 현상을 나타내고 행정 중심의 목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찾아가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부흥한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교회의 건강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느냐로 측정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즉 나가서 전도, 구제,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로 측정된다. 우리가 갈 때 그들이 온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오지 않는다. 구원코자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께 데리고 와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세일즈맨들의 성공에 관한 전국 도매상 조합에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48%가 한 번의 방문을 하고 포기했다. 25%가 두 번을 방문하고 그만 두었다. 88%의 세일즈맨들이 세 번의 방문 후 포기했다. 12%의 세일즈맨만이 줄기차게 방문했다. 줄기차게 방문한 그 12%가 그 회사 사업의 80%를 해내고 있다. 세 번째 방문으로 포기한 88%는 고작 사업의 20%밖에 해내지 못했다. 줄기차게 방문하고 전도하면 보상이 따른다. 어느 목사님은 50번만 찾아가면 교회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마음에 새겨둘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활용하고 또 교회에서 신자 전체를 전도 특공대로 활동하게 하자. 이민교회는 찾아가고 만나고 인간적인 터치를 해주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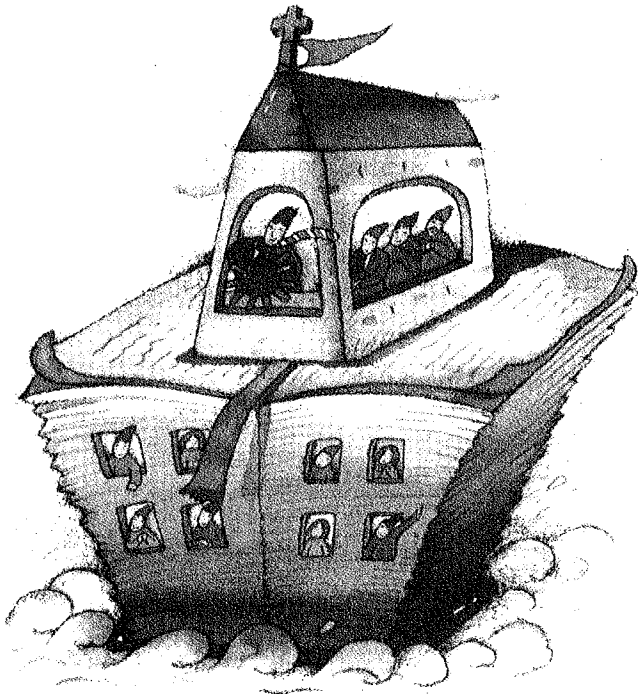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영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주님의 우선 순위를 제쳐놓고 딴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전도하는 교회는 바쁜 교회이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에 바쁘셨다. 전도하면 교회 불평이 없어진다. 흐르는 물은 늘 신선한 법이다. 전도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한인 이민자의 거의 70%가 교회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중생한 신자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어물어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원의 복음으로 계속 전도해야 할 일이다.

매리랜드의 아나폴리스에 있는 Heritage침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달 동안 성도들이 총동원하여 전도했는데 5466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 결과 성경 공부 반이 20% 늘었다. 등록 교인이 694명에서 714명으로 늘었고 평균 장년 출석이 312명에서 337명으로 늘었는데 한달 동안의 집중 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첫째 주에는 주보를 보내고 둘째 주에는 카드를 보내고 셋째 주에는 전화를 했다. "내가 그 주보, 그 카드를 보낸 사람입니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대 예배, 성경 공부에 나오시지요. 우리 집으로 초청할 테니 오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 방문해도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인도했더니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도 있다. 전도해서 구원받고 교회도 부흥되니 2중, 3중으로 좋은 것이다.

21세기는 세계가 기독교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복음만큼 인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것이 지구상에 없고 예수만이 인간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가도 기독교 문화를 접하는 날이 와야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이다. 전도, 선교는 지상 명령이다. 전도하여 정신없는 고독한 세계를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자. 전도 우선의 교회가 성장한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7. 목회자의 비전이 교회를 살린다.

크리스챤 계통의 신문을 보면 매번 목회자 교육에 대한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접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 보고 또 세미나 테입을 구해 들어보면 거의 모든 강사가 목회자의 비전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성장학에 관한 책들에서도 목회자의 비전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목회에 있어서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죠지 바나는 "비전의 능력" 이란 책에서 비전이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에게 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목회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게 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물론 어린이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필자의 교회에서 설교하시게 되었다. 그분은 당신이 목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000명만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200-300명 모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비전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정말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를 '5000명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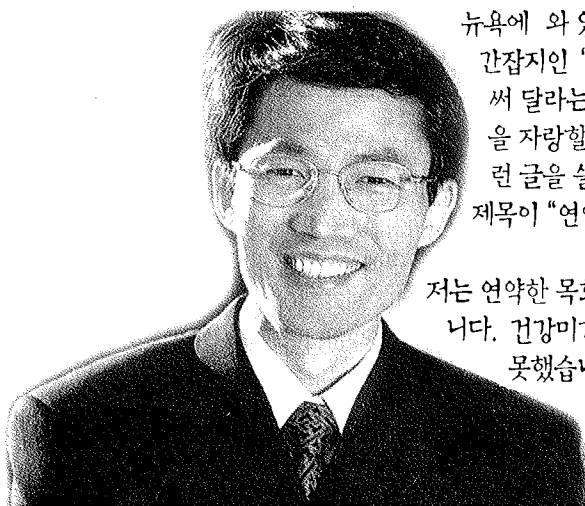
하고 비전을 계속 성도들에게 제시했더니 또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후에 은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왜 그때 좀더 크게 비전을 갖지 못했는가, 그때 30,000명 모이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지금쯤 그만큼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셨다. 비전이 교회를 좌우하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님은 1995년 5-6월 호 Ministries Today 지에 "My Growing Pains as a Visionary Leader"라는 글을 썼다. "지도자로서의 나의 비전과 고통"이라는 주제이다. 조목사님은 그 글에서 10만명 모이는 교회의 비전을 가졌다. 만명 정도 모일 때이다. 신자들이 미쳤다고 했다. 교회를 지을 때 반대자들은 헌금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말렸다. 그때 조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옳은가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옳은가 하고 그 비전을 계속 붙들었다. 교회를 지으며 골조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100번은 더 죽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나는 위대한 불신자였지만 내가 눈을 감았을 때는 나는 위대한 신자였다" 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런·교회로 만들 수 있었고 그 비전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들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회 헌금이 줄거나 성장이 안되면 비전을 체크해 보자. 교회가 문제 있다는 말은 목회자의 비전에 이상이 있다라는 말과 거의 맞는 말이다. 우리의 비전은 클수록 좋은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전보다 "어렵다,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갖자.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할 수가 있다. 큰 비전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많은 것이다. 비전이 적을수록 하나님 하실 일보다 내가 할 일이 더 많은 것이다. 비전은 하나님 능력의 믿음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취되도록 준비된 큰 것이라야 한다. 다윗은 성전 짓는 비전을 가졌다. 비록 그것이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그 비전은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솔로몬이 그 꿈을 이루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회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어느 책에 보니까 방안의 의자에 앉아서 창 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창 밖만 쳐다보는 사람에게 왜 연봉 10만 달라나 주는가" 그 사람은 지금 그 회사의 중역이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는 회사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 회사는 바로 그 사람에 의하여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목회자가 교회를 살린다. 이민 교회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시니라"(행 1: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21세기 효과적인 한인 이민 목회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피력해 보았다. 미주 한인 사회는 한국적이요 미국적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카피여서도 안되고 미국 교회의 카피여서도 안된다. 예를 들면 설교를 해도 한국어로만 해서도 안되고 영어로만 해서도 안되고 이중언어로 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있게 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항상 이중언어로 해야 한다. 이민 사회는 한국이나 미국과 언어가 다르다. 음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이민 문화를 알고 그 문화에 맞는 목회를 해야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인 이민 사회를 알고 그 특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야 할 것이다.

"연약한 목회자의 건강관리"

강준민 교수
(로고스 교회 담임목사, 본교 객원교수)

뉴욕에 와 있는 동안 "연약한 목회자의 건강관리"라는 글을 써서 두란노 월간잡지인 "목회와 신학"에 보냈습니다. '목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생은 대단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런 글을 써야 어울리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글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에 붙인 제목이 "연약한 목회자의 건강관리"입니다.

저는 연약한 목회자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비교적 연약한 가운데 태어난 것같습니다. 건강미가 철철 넘쳐흐르거나 에너지가 충천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즈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건강하세요?"라는 인사입니다. 나약해 보이는 저를 보고 안쓰러워 하는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빈정대는 듯한 말투로 들려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영성관리를 잘 하라고 외치지 말고, 네 건강관리나 잘 해라"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병약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건강한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만져주면 시원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만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상차가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상처를 어루만져주어도, 그 자체가 아픔이요, 고통이 됩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렇게 남의 따뜻한 관심의 언어를, 뒤틀어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 다 보며 더욱 가슴 아파합니다.

연약한 사람일 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고 절실하게 느끼며 삽니다. 건강한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고뇌와 고독과 고통을 갖고 삽니다.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약함을 도구 삼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성찰과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법입니다. 간당하기어려운 고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깊은 내면의 고뇌 속에서 영감에 넘치는 예술품을 남기고, 사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함을 축복의 도구로 삼았고, 연약함을 토애 얻은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함이라면 친구로 삼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축복의 도구로 삼기로 선택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 그렇게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사 53:2). 연한 순은 약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하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적응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폴 투르니에가 내린 건강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저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구김살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사고 있습니다. 저의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방심하시는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생각되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축복의 두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이해련(M. Div.)학생회장

신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학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게 있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드시 준비된 자로 주님께 쓰임을 받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월드미션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드디어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3년으로 접어드는 수학기간 동안 저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마치 저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거듭할수록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 분의 섭리가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학에 있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제가 너무 많은 길을 떠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보니 저의 연약함이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걸어왔던 길이 고통의 기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였으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처음 만나주실 때에도 또한 지금의 연약하고 지친 모습에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기억'은 제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기억은 내내 기억하고 돌이키고 싶지만 고통의 기억은 빨리 잊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억보다는 고통의 기억이 더 저의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저 혼자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자라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복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기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저의 기억이 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 이후,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많은 학우들이 저를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회장으로 선출되던 날, 저는 홍수같이 밀려오는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저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빨리 모든 것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바로 제 마음에 대한 것이었지, 제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저의 자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 중심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게 제일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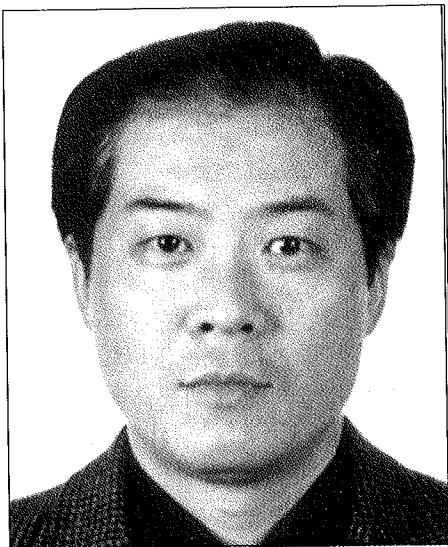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The living reminder)"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이며, 그 섬김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기억'으로, 사역자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학생회의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동기부여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의 교회학교의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 가는 어린이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매 주일 우리는 표어를 외쳤지만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이것은 예배시간에 치루는 순서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푯대가 되는 것인데 저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를 앞세우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섬김에 이르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학생회에는 많은 분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짜증날 만한 일들을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분들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사람은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전체에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몇 년 후면 저는 다시 제가 걸어왔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즐거움만을 기억하려고 할 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좌절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즐거워할 날이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월드미션신학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학우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열정들은 저로 하여금 많은 가능성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우님들과 함께 발 맞추어 학생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저와 함께 남은 기간을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뜨거운 마음"

본문: 누가복음 24:29-35

김동준 학우(M. Div)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들은 목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거의 뜬 눈으로 새웠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밤에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그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었습니다. 채찍맞은 등의 아픔으로 이그러지신 얼굴을 대할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제대로 서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선생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이 되셔서 자신의 민족을 로마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또 선생님은 자신들의 그런 소원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물고기 2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지시고 오천명을 먹이셨지요? 그리고 물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걸어보라고 하셨지요.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시고는 "걸어나오라"고 말씀 하시니까,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놀랄만한 일들을 그 제자들의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어머니까지 앞세워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다음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까지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글로바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자신의 선생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군인들로부터 시달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아픔을 참지 못하는 얼굴이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는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은 처절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바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약한 사람을 이 유대를 다스릴 왕이라고 믿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뉘어지고, 그 위에 예수님의 몸이 펼쳐졌을 때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망치가 예수님의 손을 뚫으며 못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글로바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고개가 떨어지시면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자신을 업신여기던 모든 사람들을 벌주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선생님은 이제 차디찬 몸이 되어 십자가에서 내려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그 일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자신들이 묵고 있던 집들의 문들을 안에서 걸어 잠궜습니다. 혹시라도 로마군인들과 제사장들의 종들이 자신들까지도 잡아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을 잃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께는 자신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를 따라 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선생님이셨으니 그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 역시도 쫓기는 사

람들이 되어 아무도 자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들 조차도 없었습니다.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고, 입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탄식만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글로바와 제자들에게 선생님 돌아가신지 삼일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갔다가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런 마리아의 말을 그저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환상을 본 것 이라는 말로 일축했었습니다. 글로바는 그 일 후에 곧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삼년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모든 꿈들과 희망들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10 Km 남짓 되는 길을 가면서도 머리 속에는 어떻게 자신의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수가 있으셨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에 젖어서 가고 있을 때에 한 남자를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글로바와 친구는 그 남자가 언제부터 옆에 있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남자는 자신들의 옆에서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글로바와 친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구요. 그 때 갑자기 글로바의 머리에 스친 생각이 '아니, 자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전체가 알고 보았던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제사장의 부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글로바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이 본문 전에 있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글로바는 대제사장을 말할 때에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신도 대제사장과 한편임을 은연중에 나타냈습니다. 이 모르는 남자가 자신을 선생님의 제자로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정도로 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 그 남자에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제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바로 앞 절들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 남자는 말하면서 성경을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은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려는 그 남자를 글로바와 친구는 붙들어서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같이 하셨던 성만찬을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글로바와 친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자 그 주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음을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그시로 다시 자신들이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서 아마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 되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 중에 있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글로바와 그 친구와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역시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글로바와 친구가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데 다섯 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림과 주님의 임재하심과 자신의 삶으로의 초대와 또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하는 삶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로 이어지는 다섯 가지의 단계입니다.

먼저 글로바와 친구는 잃어버림이 있었습니다. 일생동안 간직했던 큰 꿈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인생 절대절명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만큼 소중한 만남을 간직했던 선생님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글로바와 친구가 비록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올 때의 그 마음은 잃어버린 귀향이었습니다. 지치고, 슬프고,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의 그 안전함과 포근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자라서 학교에 갈 때에,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런 편안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일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이 직장에 매인 생활을 하면서 자유

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또 결혼을 했을 때, 청년 시절에 방종하던 독신의 생활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들면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과 또 하늘나라로 먼저 간 친구들, 가족들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육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는 남들이 우리 한 몸을 지탱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쪽에서 잃어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에서 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자,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겸손하자, 사랑하자,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마음먹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먹은 결심들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절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구나'하고는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와 그 친구가 이처럼 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슬퍼하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하면서 마음껏 슬퍼하도록 하셨습니다. 섣불리 그들을 위로하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글로바와 친구가 슬퍼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자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25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글로바와 친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글로바와 친구는 자신들이 미련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분노가 슬픔으로 위장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곧잘 우리들 속의 감정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슬픔이나 잃어버린 것들을 치장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잃어 버렸을까? 라고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자신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억울한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자신은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고 자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퍼집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은 진정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으로 위장된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흠투성이인 자신을 보면서 슬퍼지게 되면 단순해 집니다. 도대체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길에서 만났던 글로바와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신들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사라져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마음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기뻐서 춤이라도 추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올 때에 다윗은 마중 나가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자 엘리야는 병거보다도 더 빠르게 뛰어가서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을 바란 본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열정의 불길을 참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는 바로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겸손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구주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야 우리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가장된 슬픔 속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글로바와 그 친구가 엠마오로 가면서 슬프기는 했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면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들로 하여금 슬픔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들은 진정한 슬픔 속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옆에 있

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춤을 출 정도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뜨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긍휼 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부족으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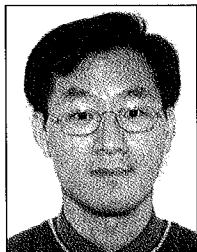
그 후에 글로바와 그 친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 가시니라.' 글로바와 그 친구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슬픔으로 가장하여 우리 속에 채웠던 것들을 모두 내어 버렸다면 그 마음속으로 주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그 친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30절과 31절에서 저들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글로바와 그 친구와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한 교제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번제를 드린 고기로 배를 불리면서 교제하던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뜻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전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형제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그 형제와 함께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이며, 권면과 위로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성만찬을 나누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슬픔은 형제와 나누어져야 하고, 기쁨은 형제와 함께 즐김으로 더욱 더 증가하며, 서로가 힘들 때 위로를 할 수가 있어야 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을 하여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교제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형제들과 또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미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투와 시기, 남을 모함하는 마음들, 거짓 증거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그런 잘못이 없나요? 다른 형제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상처투성이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 형제들이 또 저와 하나님이 성만찬을 통하여 바로 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한 몸과 한 영혼이 되게 되면서 참 길과 참 진리와 참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뜨거운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성만찬의 삶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느끼며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경험이 성만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떡을 뗄때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에 비로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글로바와 그 친구를 보십시오. 33절에서 '곧 그 시로 일어나' 분명히 그들은 시간이 늦어서 예수님보고 들어가서 쉬어 가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보다 더욱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겪었던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35절에서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이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태워진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을,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만찬의 삶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파하며, 그의 보혈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그 곳이 바로 주님의 긍휼 하심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거하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로 주님의 긍휼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아내와 또 다른 형제들과 기쁘고, 덕이 되는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서 한 몸과 한 영혼이 되는 성만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로서 이런 삶을 살게될 때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입술로 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으로 생활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두끼나 세끼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하신 떡을 떼며 주님의 잔을 들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부류의 사람들

본문 : 요한복음 19: 31-37

박 재민 (B. A)

드디어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리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크게 내쉬고 운명하셨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하늘이 빛을 잃고 광풍이 불었다고 한다. 자연도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 성경은 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얻는 교훈은 특별하기만 하다.

1. 삶을 객관화하는 사람들.

켄 가이어는 삶을 객관화한다는 것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용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나의 소용가치에 합당할 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유대인의 반응이 바로 삶을 객관화했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들과 함께 호흡했고 생활했던 예수님이 이유야 어찌 됐던 마지막 죽음이라는 길을 맞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정말 말하기도 끔찍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 마디로 부정하다고 정죄 한다. 그리고 내일은 안식일이기에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릎을 꺽어 달라고 감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몇 몇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에 대한 아픔도 컸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들의 말 속에서 하늘과 땅이 꺼지는 듯한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다.

종교적 자만에 젖어 경외감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박았던 유대인들은 살았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거룩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은 영원한 죽음에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2. 삶을 성화하는 사람들.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삶을 객관화하기보다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마치 화랑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살아 숨쉬는 작가의 이미지와 만나기 위해 고전 분투하는 사람과 같다. 그림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창조한 작가의 이미지가 고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삶을 객관화했던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성화했던 사람들이었다. 삶을 성화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애도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으로 내면화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도 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었을 것이다. 그 시간들 속에서 누렸던 행복한 만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의 한 구석을 열어 놓았다. 열려있던 마음의 한 구석은 이제 밝아오는 찬란한 아침햇살에 차가웠던 스테인 글라스에 붙어있던 성애가 녹아 내리듯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불신의 차가움을 밀어내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심했다. 급기야는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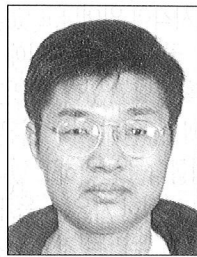
인생은 반응이라고 했다. 긍정적인 반응이든지 부정적인 반응이든지 매 순간의 삶의 여정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 내 영혼에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영혼의 빗줄기들이 대부분 내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영혼에 무수히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지 못하고 메말라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삶의 순간을 성화하지 못하고 객관화하려는 내면의 욕망 때문이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느끼기보다는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 유익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의 반응을 통해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순간의 삶에 대한 고귀함을 반추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묵상이란 말의 라틴어 원어의 의미는 뒤로 굽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나의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의 진리와 교훈과 가르침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배우는 자의 삶의 태도를 고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최근 교회에

부쩍 사람들이 많아졌다. 안식하기 위한 주일이지만 수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내 육신은 어느새 피곤에 지쳐있을 때가 많다. 이런 분주함 때문에 정말 고귀한 만남,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다. 체육관 한 구석에서 어머니를 찾고 있는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쁘다는 것 때문에 지나칠 때가 있다. 모임 장소를 찾고 있고, 사람을 찾고 있는 새신자들의 필요에 무심코 발걸음을 지나칠 때가 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말라함으로 소리 없는 고통을 울부짖는 성도들을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생명을 위한 고귀한 몸짓을 통해 순간 속에 역사하는 영원함의 세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중에 사무친 주의 성실하심

본문 : (시편 36: 5-6)

안용균(B. A)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눈을 들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을 사는 유한한 인간의 시각으로 거의 영원한 하늘을 보고 오늘은 더 높고 푸르다느니, 아름답고 찌푸렸다느니 하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나 금방 알 수 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본 그 하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은 침묵하고 있을까? 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서 일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어서 일까?

나는 하늘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간은 하늘처럼 영원한 존재이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잘 알기에 하늘은 자기 자리에서 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파랗다는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면 하늘은 으레히 파란색으로 칠했고, 파란색은 하늘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

른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하늘에는 수많은 색깔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하늘을 하늘색이라 이름할 수 있을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수완이 돋보이는 한편, 그런 엄청난 발상이 인간의 감정, 감각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몰두하다가 나는 색깔에 대한 나의 태도에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하늘하면 연상되던 파란색을 다양한 색깔로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늘하면 파란색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볼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색깔에만 관심하여 하늘을 바라보던 나에게 어느날 새로운 하늘이 열렸습니다. 시편 36:5-6절을 암송하며 하늘을 보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새들, 나비류, 날파리들, 기묘한 형태의 구름, 신비로운 색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늘은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나는 그 순간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공중에 사무쳤다고 표현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장담컨대 하나님은 창조 이래 단 한번도 똑같은 하늘을 되풀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흔쾌히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루 한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 닮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시간 하늘을 우러러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공중에 사무쳐 있는 주의 성실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삼아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저자: 존 맥아더, 역자: 심 이석

박 재민(B.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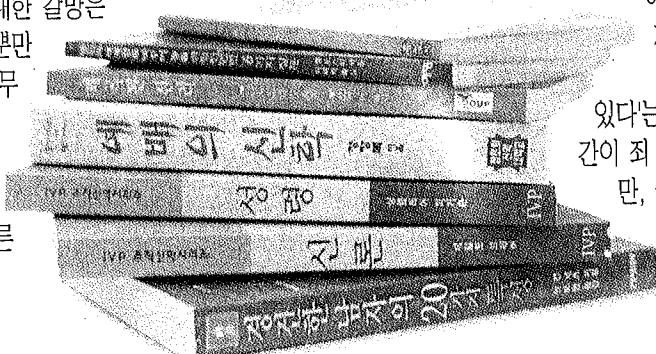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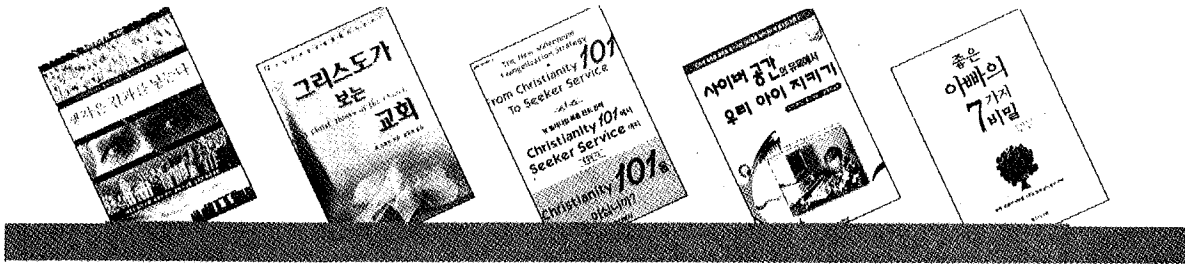
존 맥아더 목사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접하는 순간 비록 적은 분량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전체 윤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점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은혜와 율법간의 대조를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관점에서 기술한 것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라는 갈라디아서의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등대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그의 해석-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에 관한 그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참석하느냐에 달려있다.....그러므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자연히 내적인 투쟁을 일으킨다. 그 내적인 투쟁은 반듯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있다.-은 A.D 49년에 살았던 갈라디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가져다준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에 대한 그의 상세한 해설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선명한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한다.

존 맥아더의 갈라디아서 강해설교는 갈라디아서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문화적인 영역에 국한 받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겪었던 IMF 의 풍파는 서구 자유주의의 무한한 침투의 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나오는 동안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무한한 영역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를 넘어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그 근본 원리를 망각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존 맥아더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의 새로운 지평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날 독자들에게 열어주고 있다. 그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참된 자유의 메지지이며, 굴레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메시지이다. 서구인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말하며, 새로운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1) 반면 전통이라는 올무에 인간의 자유가 올무로 묶여있던 동양에서 역시 서구의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바람으로 잠자고 있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는 국가일수록 개인에 대한 자유의 영역이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서구 자유주의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진정한 자유는 육체와 정신의 자유를 넘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적인 자유는 진리의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며, 진리의 길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참된 자유를 찾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저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가 바로 영적 자유는 진리를 통해 다가오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자는 그를 아는 것이 곧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대조함으로 강조한다. 이점에 대해 존 스토트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바울의 메시지는 루소가 '사회계약론'의 첫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 와 노예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논증을 확립하기 위해 저자는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도직에 있음을 기술한다. 특히 1장1,2절 그리고 1장 15-17절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인 체험을 근거로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으며, 이것에 대해 그의 전하는 내용이, 그의 회심의 기록이,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들의 인정이 그것을 증거 한다고 기록한다.

5장에서 8장에서 은혜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성경적인 권위로 변호한다. 특히 저자는 사도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통달하며, 통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함으로 구약의 내용이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로 들면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 종과 아들의 비교, 자유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비교는 것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깊이 묵상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로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도의 삶은 성령을 통한 은혜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샌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E.P Sanders 는 바울 신학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가져온 학자이다. 개신교에서는 통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anders 는 말하기를 Convenantal Nomism 계약적 율법주의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창문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다고 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계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구약의 계약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계약관계가 존속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약의 새로운 주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계약 관계가 형성되긴 하지만 선행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전통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이것으로 인해 선행이라는 것이 간과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해된다.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선행이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율법주의 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율법주의와 기독교간의 선행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내면의 동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종의 개념이지만 그리스도안에서는 자유자로서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적인 관점에서 존 맥아더 목사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헬라어 연구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설교라는 형태로 옮길 때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현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헬라어에 대한 일반 청중들의 지식은 거의 무지한 만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성경연구는 오직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 인양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둘째로 신학적인 것이 강조되는 만큼 오늘을 살고 있는 청중들의 상황화에 대한 것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얻은 insight에 대한 foresight가 약하다는 점이다. insight는 하나님과 성도간의 수직적인 측면에서 강조된다. 반면에 foresight는 성도와 세상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것이다. 저자가 9장에서 12장까지 성령을 통한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을 강조한 만큼 이 책의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아쉽다. 서두에서 저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헌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물밀듯이 밀려오는 자유주의의 팽배해진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쉽다.

하나님의 종 손양원 목사님

오하영(B. A)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분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다음의 3가지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로 빚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첫째,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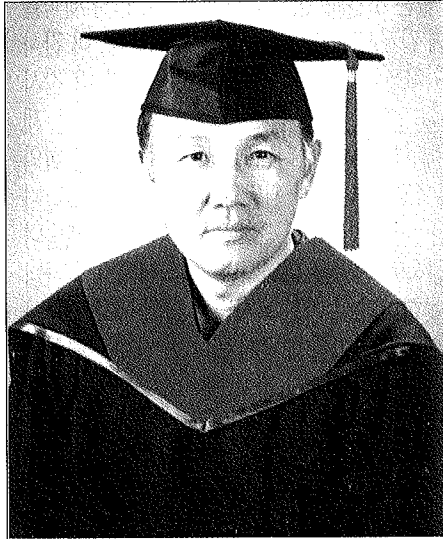
"나환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옥중고생을 한 것도 주를 사랑한 것이요, 공산군에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고난을 감당하며,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해 이 땅에서 죽도록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는 원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아들로 삼는 비범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가까이 가기도 꺼려지는 나환자들과 함께 하고, 피고름 난 상처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 분의 삶은 마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안수함으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내면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 이 사랑을 배우길 기도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둘째, 손양원 목사님은 고난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며 고난받고 순교하기를 사모하신 손양원 목사님.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지혜보다 오히려 욥의 고난과 인내를 사랑하는 목사님의 높은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 철저히 고난받기를 다짐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철저

히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공산당 앞에서도, 일제 앞에서도 그 분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따르다 옥고를 치르며, 고문당하는 것을 그 분은 행복이라 여겼고 오히려 이를 적극 사모했습니다. 그 분의 높은 신앙의 자세는 바로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무엇보다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지만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나약한 저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복음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기를 결단합니다. 고난은 큰 복입니다. 고난 뒤에는 열매가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 자체만 보지 않고 그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이 참예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셋째, 손양원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순교 제물로 드린 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9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이 감사 제목들을 읽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감사 제목을 통해 이 분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회의와 의심에 빠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19세기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와 사역 연구

김대환(M. Div)

I . 개인의 이력 사항

1. 선교사 훈련시기

1832년 5월 21일 :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요크셔 반슬리에서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이자 약사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남 1849년 여름(17세) : 창고에서 독서중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란 구절을 통해 죄사함의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얻었고 같은 시간에 어머니와 누이의 중보기도의 열매로 얻은 구원의 확신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평생 깊은 헌신의 길로 인도받았다.

1850년 5월(18세) :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기도 중 중국으로의 부르심을 확신을 받고, 중국 선교 준비로 자신을 절제하고 전도의 훈련과 성경공부와 기도, 중국어 공부도 시작하면서 Hull에서 의사 조수 수련을 통해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2. 1차 중국 선교 사역 시기

1854년 3월 1일(22세) : 중국 복음화 선교회 대표로 5개월 항해 끝에 중국 상해에 도착, 약 1년간 양자강 주변을 따라 10회의 전도 여행.

1856년 (24세) : 중국인 복장을 하고 최초의 내륙 전도를 시작하였고 이 때에 허드슨에게 큰 영향을 준 부흥사 윌리엄 번즈를 만남.

1857년 6월(25세) : 중국 복음화 선교회 선포.

1858년 1월 20일(26세) : 중국에서 영국인 첫 번째 부인 마리아 다이어와 결혼.

1860년 여름(28세) : 중국에서의 6년간의 헌신적 사역으로 인해 건강상 무리로 일시 귀국.

3. 2차 중국 선교 사역 · 중국 내지 선교회

1860년-1865년(33세) : 영국서 건강 회복차 은둔 생활 중에도 닝포 성경 개정 작업 계속.
다시 선교사로 재 헌신 다짐하고 중국 내륙 선교사를 기도로 구함.

1866년 5월 26일(34세) : 최초로 중국 내륙 선교사 일행 16명과 4명의 어린이가 중국으로 출항.

1868년 8월 22일(36세) : 중국 양주 폭동중 희생각오로 현지를 지킴으로 복음이 원주에 전파

1869년 9월 4일(37세) : 영적인 재충전 시기. 성령으로 충만된 생애 속에 나머지 사역 담당.

1870년 7월 23일(38세) : 콜레라 발병으로 허드슨 테일러 부인이 33세로 임종함.

1874년 1월 27일(42세) : 미개척된 9개성에 선교사 파송과 현지 전도자 요청기도 성경에 기록.

1876년-78년(44세) : 치푸(Chéfoo) 협정 체결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내륙 지방을 위해 포교 활동.

1879년(47세) : 두 번째 부인 폴딩 여사가 내륙지방으로 여성 사역 시작.

1885년(53세) : 기도의 응답으로 70여명의 개척 선교사 중국 도착.

1886년(54세) : 영국 선교부에서 100명의 새로운 사역자와 $50,000 선교비 위해 기도.
1887년(55세) : 모금과 구인 없이 102명 선발되고 $55,000 선교비가 11통 편지로 해결.
1888년(56세) : 미국 방문하여 D.L. 무디의 영접 받고 미국서 14명 선교사 파송.
1889년(57세) : (막 16:15) 천하만민의 참뜻을 깨닫고 중국 전체 국민 위해 전세계 모든 교회가 분배하여 선교회 직분 맡아 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적용.
1902년 11월(71세) : 내지 선교회 총재직 은퇴.
1905년 2월(73세) : 마지막 중국 방문.
1905년 6월 3일(73세) : 하님에서 허드슨 테일러 사망.

Ⅱ. 선교사의 업적

1. 선교 선구자 역할

1854년 처음 중국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내륙에는 한 명의 개신교 선교사가 없는 상황과 생명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 그의 인내의 사역은 후에 중국 내륙 선교회에서 파송될 수 백명의 선교사의 안내와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그는 큰 Vision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광대한 지역을 복음화 시켰으며 뛰어난 조직력과 지도력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일한 선교사이다.

2. 의복의 토착화 작업

그는 효과적인 중국 복음화를 위해 중국인의 전통적 관습의 옷을 입고 윗머리를 면도하고 뒷머리를 길게 함으로 중국인과 완전히 동화하였다. 이 일로 전에는 서양 선교사의 양복이 구경거리가 되어 복음의 장애가 되었으나 복장을 바꾼 후에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기 시작했다. 같은 유럽인들에게는 사회적 소외감도 있었지만 그의 변화된 토속적인 복장이 중국인으로 하여금 자기 안방까지 초대하게 하였고 구도자의 관심이 증대하였다. 후에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선택한 의복에 대해 "내륙 지방 전도에는 가장 큰 협력자였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본을 따라 의복을 바꾸었다.

3. 기동성(순회 전도의 초석을 다짐)

처음 중국 도착 후 15개월 동안 상해 주변의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혼자서 10회 이상의 전도를 마쳤고 양자강 상류를 따라 58개 도시를 방문했으며 그 중 51개 도시는 이전에 한 번도 복음의 일꾼이 다녀가지 않은 곳이었다.

4. 현지 중국인 사역자 양성

허드슨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중국인들의 교회로 중국 복음화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그를 돕는 주변의 중국인들이 무보수와 순수한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도록 주 6일 매일 집회를 갖고 그 후에 3시간씩 성경공부로 사역자 양성을 하였다. 이들은 훗날 중국 내지 선교회의 큰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

5. 선교 저술 활동으로 선교의식 고취

허드슨은 건강상 이유로 5년간 영국에 있는 동안에도,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고려하는 젊은이들과 많은 서신 교환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헌신케 했고 중국의 절박한 영적 필요를 알리는 일을 위해 "중국의 영적 필요와 요구"라는 소책자를 통해 각 교파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지망생이 많아졌고 내륙 선교사 100명을 요청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어 이루어지는 결실을 맛보았다.

6. 믿음 선교(Faith Missions)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생애는 한 마디로 믿음을 생활로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수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 대륙을 복음화 시켰으며 그의 생애의 많은 문제를 오직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조달받았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믿음의 훈련은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스스로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로 자신을 끌어내렸고 중국에 가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부탁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영국을 떠나기 전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의 비결을 배웠다.

(1) 물질적 믿음 선교

중국 도착 후에 정착과 초기 순회전도 때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으며 선교지의 모든 운영비까지도 그 자금 출처를 기도로 해결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영국의 부유한 상속자를 움직였다.

(2) 선교사 파송 요청

무엇보다 믿음 선교의 결정체는 해외 선교사를 보내면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국 내륙 지방으로 가서 즐거이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 지원자가 있었다. 그는 선교사 후보를 위해 기성 교단에서 성도의 헌금이나 사람을 유인해 내지 않았고 오직 기도의 응답에만 의존하였다. 1881년 중국 우창에서 70명의 믿음의 내륙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여 3년 내에 다 채워졌고, 1886년에는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여 1년 후에 선교부에 600명의 남녀가 지원하여 그 중 102명이 선발되어 모금운동 없이 단지 11통의 편지로 송금되어온 55,000불과 함께 중국에 보내졌을 때 무엇보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새로운 감동이 있었다.

(3) 국가 정책을 움직인 믿음 선교

1875년 기도의 응답으로 18명의 개척 내륙 선교단을 파송한 후에 2년 동안 내륙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 때에 영국과 중국의 정치적 문제로 선교사 및 외국인들을 철수시킨다는 위기의 소식을 듣고 허드슨은 2년 전에 중국으로 가는 선박 안에서 중국에 복음을 듣지 못한 1억 8천만의 영혼을 위해 내 몸을 내 놓겠다는 기도를 기억하고 간구하였다. 철수한다는 최후의 순간에 중국 외무성의 변화로 영국 장관과 조약을 조인했는데 이 조약으로 중국의 어느 지방이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었다.

7. 편만한 복음 전파

1889년 허드슨 테일러가 61세 때에는 .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 다른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천하만민"에게 라는 도전적 말씀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 선교 복음화의 일은 중국 내륙 선교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교회가 분배하여 이 선교회의 직분을 받아하면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후 "천하만민에게"라는 책자가 출판되어 세계의 많은 선교 지망생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는 그의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00년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5년 전에는 내륙 선교회의 선교사 수가 750명이었고 1932년에는 그 수가 1285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산간지방, 오지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전 중국 내륙에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였다.

8. 독신 여성 선교사 활용

내지 선교회에는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많았다. 테일러는 오래 전부터 독신 여성들이 열렬하게 선교 자원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다. 당시에 폐쇄사회 속에 움추린 중국 여성들을 위해 여성 선교사들은 적합한 그들의 사역을 잘 이끌어갔다. 특히 둘째 부인으로서 선교사 자질을 갖춘 제니는 독신 여성 선교사를 이끌고 중국 북부지역에서 독자적인 사역을 담당하였다.

Ⅲ. 선교사역의 비평적 평가

1. 자기 자신에 대해 가혹한 절제

중국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는 매일 극도로 절제된 식생활로 인해 허약하던 몸이 영양실조로 더욱 악화되었고 악성 열병에 걸려 생명의 위험까지 이르렀으며 몇 달을 병상에서

쉬기도 했다. 오직 그의 필요를 기도로만 충당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으나, 기도만으로 육신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선교사들은 문화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이국 땅에서 환경과 풍토와 과중한 업무와 싸워야 하는 극심한 부담을 안고 있기에 건강 문제도 복음의 중요성 다음으로 내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선교의 자원이다. 그는 중국 사역 초기인 6년 만에 그의 건강의 악화로 5년 이상을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 주시지만 이미 육체 안에 질서로 정해놓은 원리에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한다.

2. 다양한 계층의 선교 정책 부재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전문적인 교육과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열정과 헌신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이끌어갔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그의 선교 경험과 성격이 바탕이 되어서 교파를 초월하여 노동자 계급에 의존하여 구성되었고, 또한 선교사 후보생들도 영국의 많은 노동자들 중에 헌신된 남녀 일꾼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전달받는 자는 전달하는 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리의 깊이는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구도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없었을 것이다. 편중된 한 계층만을 상대로 선교하는 일은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 계층간의 오해를 줄 수 있음으로 보다 넓은 복음확산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식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정책 시도의 부재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그 계층에도 복음이 소개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변화된 삶을 통해 그 시대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후세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막중하기 때문이다.

3. 현지인을 위한 현지 교회 부재

선교활동 초기부터 그는 선교 개척자의 자세로 순회전도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소식을 접하게 해주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위해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새 신자 양육 문제에는 소홀했었다. 그들은 초창기 사역 때부터 자체 교회를 여러 곳에 세워 구원받은 새 신자를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도록 일꾼으로 키워야 했으며 그 안에서 탄생되는 새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아 그들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했다. 단지 중국 내지 선교회는 순회전도 사명의 역할은 잘 감당하였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Vision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는 당시 선교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였기에 그들의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선교사의 전방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루어 놓은 사역을 뒤에서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재생산의 일이다. 만일 그와 함께 조직력과 능력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갖춘 동역자가 있었더라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은 team work를 이루어 중국의 각 도처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은 일꾼으로 훈련시키어 현지인으로 현지인들을 복음화 시키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죠지 뮬러의 중보기도

1868년 8월 양주 폭동 후에 허드슨 일행들이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인 죠지 뮬러의 기도 가운데 중국 내지 선교회의 재정적 지원의 감동이 일어나 그 후 2-3년간 매년 10,000불씩 송금함으로 내륙 선교회의 매년 부족분을 채워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중국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교사 형제를 위해 매일 기도하여 기억함으로써 중국 내지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후방의 큰 주력 부대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중보기도의 사실이 선교사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

Ⅳ. 평가 적용

19세기만 해도 복음 선교의 열성과 뜨거운 헌신만 가지고도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와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선교사 파송보다는 질적인 선교사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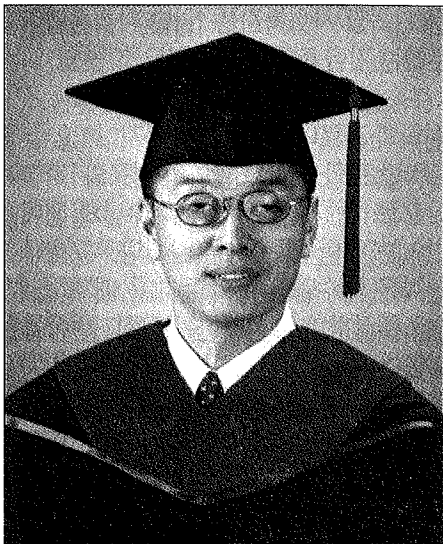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구촌의 소식을 접해 듣는 시대에 많은 삶의 문제들을 신학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자격요건이 보다 많은 교육 기회와 전문적인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격과 자질이 부족한 선교사로 인해 선교지에서 발생되는 많은 불협화음과 목적에 이탈된 행동은 오히려 피선교지의 복음을 차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각 이단 종파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는 선교지의 난제 가운데 한 가지인데 선교사의

신학적 해석 능력과 영력이 결여되어서는 양무리를 진리의 풀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질이 준비된 선교사가 요구된다. 허드슨의 사역 후반기에 내륙 선교회를 중국에 본부를 두고 운영해 온 사실은 중대한 선교 정책의 의미가 있다.
선교지의 현지인을 위한 선교정책은 현지의 감각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선교단체나 교단에서도 현장에 있는 사역자에게 직접적인 권한과 결정권이 부여되어서 토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의 선교정책에 있어서 믿음 선교의 원칙의 중요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선교사도 사역에 필요한 영적 · 물질적 필요를 우리의 최대 자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풍성함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의 본을 보여 주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돕는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선교는 누구에게나 전승되어 그의 사역에 원칙이 되어야 하며 또 같은 믿음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같은 응답과 공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현지에서 좋은 일꾼들을 발견하고 양육시킴으로 자치 교회를 든든히 하고 현지 일꾼들이 헌신되어진 영적 성숙 상태에 이르러서는 그와 함께 현지의 사역을 나누어 담당토록 함으로 team사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전문 사역자가 담당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의 대상들은 현지 평신도만이 그들을 접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주어지 기회이다.

위대한 19세기에는 전 세계의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선교를 이끌어 갔지만 이 시대의 선교에서는 교회에 맡긴 바 책임이 크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교회와 선교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교회는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기도로 후원함으로 동참할 수 있고 선교회는 선교사의 영적 관리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함으로 후방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선교의 중요성을 이행하기 위해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선교회는 그 선교사의 사역을 현지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여함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현지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여함으로 서로의 분담 역할 사역이 보다 효율적인 선교 방법이라 생각된다.

선교의 목표는 현지 교회 설립이 중심적으로 되어야 한다. 19세기의 선교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 목표는 교회 내에서 현지인을 훈련하고 성장시키어 그 일꾼들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로 재생산토록 하는 차원까지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선교와 교회

황성은(M. Div.)

Ⅰ. 들어가는 말

A. 문제 제시

오늘날의 장애인들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채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불평등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밀알선교단의 정형석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10%인 100만에서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불과 5% 미만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의 주장에 의하면 시각, 청각, 및 지체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교회 수를 전국적으로 130여 교회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교회 수의 0.3%에 불과한 수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회 통합이 부족하다는 장애인교회 교역자들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수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체교인 수 1,200만 명 중 장애인 교인 수는 불과 0.001%인 1만 여명인 것으로 한국 장애인 선교 연합회는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한국교회는 약간의 구제차원에서, 또는 교회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장애인 문제를 처리하려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는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 선교는 결국 첨예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해결을 가능케 하는 소리이며,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쁘게 선포하는 소리인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장애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사랑으로 전해져야 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더 이상 장애인들을 장애인 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부수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복음전도 사역, 즉 선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B. 목 적

장애인 선교란 장애인을 주축으로 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장애인 이해, 장애인을 향한 교육, 의료, 직업,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등의 공급, 전도 훈련, 장애인 선교기관간의 정보교환 등의 제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요청된다. 동시에 예수님을 영

접한 장애인이 꾸준히 신앙성장을 꾀하고 동시에 불신 장애인들을 향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장애인 선교를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단지 사회봉사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의, 교회론의 정의, 선교의 대상에 있어서의 올바른 개념 규정을 점검하는 차원과 깊은 관계를 갖고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는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노력과 책임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선교에 임할 때, 이 땅의 장애인은 더 이상 선교대상에 있어서 마지막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 선교의 과제들(교회의 역할, 복지)과 장애인 선교의 올바른 방향을 성경적 관점, 특히 예수의 사역에 기초하여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맞이한 교회의 사명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교회와 사회복지

A. 교회의 사회복지 필요성

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분명하게 구현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론 정립 과정을 거치면서 그 원천적 의도를 성실하고, 철학화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균등한 기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인간의 삶이란 이러한 사회적, 정신적 요소 외에도 영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대 사회사업은 인간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복지 발달의 동기와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대 사회사업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철저한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 기술 중심의 사역을 실천한데서 오는 사명감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명감의 문제는 일반 사회사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이다. 사회사업의 맹점인 사명감의 문제와 그 한계성은 사회사업의 기원, 즉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 즉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사회복지는 일반 사회사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B.. 신학의 파트너로서의 사회복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의 선포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는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있는 삶을 사셨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학은 예수님의 삶의 문제를 배제하고 영적인 삶만을 주장하면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 동반자적 자세를 배격하고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한 전도 문제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느 한 면이 우월하다고 표현할 수 없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과 사람들을 섬기는 면에서 오히려 섬김의 삶을 강조하고 계심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도 말씀과 나눔의 사역은 하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말씀의 역사뿐 아니라 성도들의 나눔과 열성적인 섬김의 결과, 즉 온전히 통합적인 신앙의 형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학과 사회복지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새는 어느 한 쪽 날개로만은 날 수가 없다. 전도만으로 사회를 치료하기를 고집하거나, 또는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고 복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물 없이 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사회복지는 철저히 협조하며 동반자적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할 것이다. 신학과 사회복지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이고, 잃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세우는 작업이다.

C.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사회복지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면, 교회는 물량주의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개혁

의 의지는 상실되고 만다. 사회적 관심을 배격한 교회성장은 결국 물량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에 따라 물질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 사회발전의 장애물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개혁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에 눈을 감지 않고 열린 눈과 마음으로 도전하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의 사회는 사회의 아픔이 우리의 무관심의 결과임을 깨닫고 함께 아파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를 기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파하고 있는데, 교회의 유익만을 고집하고 교회의 성장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전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애써 부인한다고 해도, 결국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선교를 감당할 수 없음이 정확하게 드러날 뿐이다. 이 엄청난 사회문제들을 방치하며 배격하고도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 없다.

D. 교회 개혁으로서의 사회복지

성장 제일주의로 비대해진 교회, 특히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것은 철저한 나눔, 아낌없이 주는 정신이 필요하다. 교회개혁의 첫 번째 요소는 더 가지기 위하여 안달하며 나누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과거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나눔이 있을 때, 가능하다. 물론 다른 중요한 개혁 방편들이 있겠지만, 사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을 단순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참 개혁은 바로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사회복지는 사회개혁의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E. 생명구원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일반 사회사업이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다면, 기독교 사회복지의 바탕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표현이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회복지이다. 기독교의 사회복지는 '생명구원'

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육체적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 사회사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적 생명구원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도 일치한다. 선교가 인간의 상황과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독교 사회복지는 이와 일치한다. 사회복지가 인간의 외적인 삶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인간의 외적인 삶은 철저히 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고, 복지를 통한 영적인 삶의 구현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신학과 사회복지는 일치한다.

III. 교회의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A. 문제점

1.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으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정적인 장애인관과 복지의식의 부족이다.

a. 부정적인 장애인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도 발달되었다. 고대에는 장애인들이 미신과 편견에 의해 학대와 무시, 조롱의 대상이었으나, 중세에 들어와 기독교가 크게 전파되면서 자비와 동정을 기초로 한 보호수용의 시대로 변화되었으며, 근세에 들어서는 인문주의 사상의 대두와 종교개혁의 성과, 그리고 의학분야의 발달로 장애인에 대한 가능성이 인정되어 특수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완전한 참여와 평등아래 사회통합과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이 권리로서 마련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민들의 혐악시설(嫌惡施設)이 되어 반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연구회가 1993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60%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동

정적으로 대한다는 사람도 약 25%인 반면에 차별 없이 대한다는 사람은 불과 약 5%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장애인관은 편견과 동정으로 일관된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을 믿고 있는 한국교회도 사회와 비슷한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장애인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거나, 장애인을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동정하고 있으며, 교회건축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장애인관이 긍정적인 성경적 장애인관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바람직하게 기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와 특수교육의 최종 목적지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복지가 권리와 평등의 측면에서 보장되지 않고 자선과 자해와 동정의 측면에서 주어질 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b. 복지의식 부족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사회복지는 세속적인 일이므로 교회는 전도사업에만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사회와 교회를 분리하여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세속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교회가 공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 교회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디까지나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회복지는 전도를 위한 수단이나 또는 전도에 대한 보완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c) 전도와 사회복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동반적인 입장으로 인식하여 사회복지를 교회의 본질로 보는 입장이다. (d) 사회복지를 하되 사회복지가 전도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을 전도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4가지 입장에서 대부분 사회복지를 하되 전도가 우선이라는 (b)입장과 전도와 사회복지가 동반자라는 (c)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사회사업은 분리된 적도 있었고 지나치게 사회운동 방향으로 흘러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사회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념적인 인식은 높지만, 현재의 사업에 대한 수준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실천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가 발표한 결과 (표 Ⅲ-1)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교회의 선교방향으로 사회봉사와 전도를 동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전도사업에 치중하거나 전도사업에 약간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합계
전도사업에 치중	23.5	29.5	26.4	19.4	23.6
전도사업에 약간 치중	43.5	43.4	40.0	43.0	42.7
중간	25.8	17.1	28.6	33.4	27.4
사회봉사사업에 약간 치중	6.0	6.2	4.6	2.9	4.9
사회봉사사업에 치중	1.2	3.9	0.5	1.3	1.4
합계	519	129	220	314	1182
	43.9	10.9	18.6	25.6	100.0

(표 Ⅲ-1) 교회의 선교방향(13) (전도와 사회봉사) (단위: %)

숭실대 박종삼교수는 1999년 4월 11일에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가 마련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의 과제'

라는 강연에서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신학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복음주의는 개인구원과 전도 및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사회봉사와 사회행동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신대 서정운교수의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에서 언급된 통전적 선교를 주장했다.

통전적 선교란 전도와 사회적 봉사의 실천이라는 두 요소를 불가분리적인 관계로 보는 선교관으로 전도가 사회봉사에 종속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선교=인간구원+사회봉사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복지의식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학적으로 전도사업에 약간 치중한다 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도사업에 치중한다는 응답과 사회봉사에 치중한다는 응답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전도에 치중하면서 사회복지를 약간 하는 정도의 복지 의식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또한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육체적 문제보다는 영적 문제에 관심을 치중하여 복음과 사랑에 대하여 이론적인 면은 강하나 실천적인 면이 약한 것과 교파의식으로 인한 교파간의 대립과 교회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재원의 부족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지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재원의 부족이다.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자원에는 재정자원, 시설자원, 인적자원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부족한 자원은 재정자원이다. 한국교회의 교회재정 규모별 사회봉사사업 실천상 또는 계획상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내용 재정규모별	소	중	대	평균
교회재정문제	46.5	35.2	24.0	35.2
지식과 기술부족	11.9	20.5	14.7	15.7
교회시설및 공간부족	17.8	15.2	32.0	21.7
교인들의 호응부족	3.8	3.4	7.0	21.7
당회의 사회봉사사업 소극적	4.8	9.7	8.2	7.6
지역주민들의 호응부족	2.5	2.3	2.2	4.7
관공서의 행정절차 복잡	2.1	1.7	1.0	1.8
기타	4.7	2.2	3.6	3.5
어려움이없을 것	5.9	9.8	6.7	7.5
계	100.0	100.0	100.0	100.0

(표 Ⅲ-2) 교회재정 규모별 사회봉사사업 실천상 또는 계획상 어려움 (단위: %)

(표 Ⅲ-2)에 보면 교회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계획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의 재정상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적다는 것이다. 소형교회의 경우 46.5%, 중형교회의 경우 35.2%, 대형교회의 경우 24%가 재정문제를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9년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가 남부장애인복지관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선교기관을 비롯한 장애인임의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간한 '서울시 장애자 임의단체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도 법인을 신청했는데, 안된 이유가 기본재산의 미달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의 내용과 설립목적을 대비해 볼 때, 수행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와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확보의 가장 큰 어려움도 재정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입 액이 필요경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여부에도 약 70%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런 경우 차용한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만 보아도 장애인선교회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의 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3. 운영의 전근대성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임의성, 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 영세성 등 운영의 전근대성이다.

a. 임의성

150개로 추정되는 장애인선교회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기관은 불과 5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의 단체이다. 임의단체는 문자 그대로 임의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서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며, 또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나 운영규정이 없는 기관들이 많다. 지역교회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인선교회와 마찬가지이다. 물론 교회는 종교단체로 교단의 총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법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종교활동과 사회복지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임의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 운영의 영세성

지역교회가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접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보면 임기응변적이며 장애인시설 지원과 같은 일방적인 현물지합의 서비스를 주로 전개함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으며, 예방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 또한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의 결여, 자원의 불공평한 배분, 사업의 편중과 누락, 전달된 서비스의 사후관리 결여 등의 운영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선교회의 경우에도 수용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의 복지만 수행하기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시설의 보호수준은 사회의 경제수준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립 또는 재활 가능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輔導)라는 운영기준도 없고 운영기준이 있는 시설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명목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직접 프로그램은 장애인선교회나 교회의 간접 프로그램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운영주체가 되는 교회의 인식부족과 전문성의 부재로 실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의 부재에 있으므로 그 결과 단계적, 조직적, 전문적인 사회봉사사업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B. 개선 방안

1.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활은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장애인관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적 장애인관으로 사회를 계몽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와 무관심을 답습하고 있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 동안 장애인 복음화율을 5%정도로 추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무관심을 증거할 수 있으며, 장애인교회가 별도로 있다는 것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은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긍정적인 장애인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a. 긍정적 장애인관

1) 인격적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과 장애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여 차별대우나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장애 자체는 기능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기능적인 차이란 결국 개인차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고 따라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고 했다(약2:9).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는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의 권리이다.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행복 추구권 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장애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장애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즉 장애인은 무능력하거나, 인격이 부족하거나,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이 비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생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를 뿐이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 장애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신앙적인 편견이 있다. 물론 성경도 커다란 전제로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눅13:1-5에서 사람의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피상적인 설명을 거절하셨다. 오히려 선천적 맹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설명하셨다(요9:1-3). 따라서 장애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제외시켜 왔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반성하면서 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회의 시설부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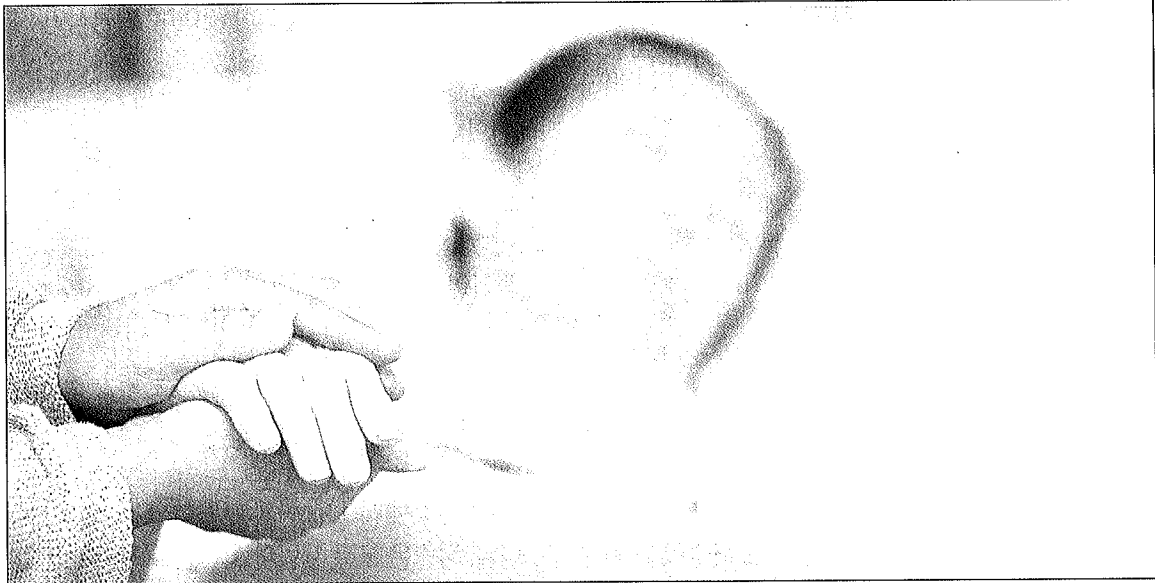
4) 장애에 관련된 용어를 현대적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소경을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 귀머거리를 청각장애인, 벙어리를 언어장애인, 절뚝발이를 지체장애인, 저능아나 바보를 정신박약인 등으로 각각 바꾸어 호칭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기용어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인 구시대에 사용했던 용어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현시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b. 교회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전환

한국교회 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은 효율적인 전도의 수단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전도의 수단 이상의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모든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책임과 사회사업을 실천하며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은 교회와 장애인 선교의 본질인 것이다.

c. 교육과 계몽

교육과 계몽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교회지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목회자 계속 교육원과 신학교육의 과정에 교회사회사업, 또는 장애인복지 등의 강의가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회학교 교육에서도 반드시 공과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하며, 일반교회에서도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일을 전후하여 주일예배 때에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설교를 통하여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설교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 선교와 사회사업을 전담하는 교단의 상위 부서나 장애인선교기관들이 협력하여 장애인주일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한다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선교와 복지에 대한 것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면이 필요하므로 장애인선교기관이

나 복지기관의 시설견학, 장애인행사 참관, 장애인 캠프 참가 등의 행사에 교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선교와 복지는 국민들과 교인들의 장애의식과 무관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장애인 복지의 현장에 있는 장애인선교회, 장애인교회,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회, 교단의 장애인 관계 부서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일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후원사업의 개발

우리 나라 사회복지시설들은 처음부터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순수한 선의에 의해서 출발했고 지금도 국가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사업 기관들도 운영이 어려운데 하물며 국가의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교회의 장애인복지 기관들은 후원이 없으면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나 개발은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재원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이다.

a. 후원자원의 개발

이러한 재원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사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후원사업의 개발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마케팅(Marketing)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마케팅 개념의 도입은 지금까지 구분과 자선이 후원동기가 되어 시설 장이나 특정인의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후원사업을 했던 것에 비하여 이제는 장애인의 욕구와 그들의 시민적 권리회복이 후원동기가 되어 기관의 전 직원의 구조화된 조직체를 수단으로 하여 후원금액의 확충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확충과 통합에 목적을 두는 체계이다. 개발의 방법으로는 특정 정보지와 홍보지, 회보, 방송, 신문, 잡지 등에 후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 및 신우회, 기타 기관에 후원을 의뢰하며 기획행사나 후원회원의 재조직을 통해 후원자를 개발한다. 후원요청은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하여 하면 될 것이다.

b. 후원자원의 관리

후원자의 관리는 후원자들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교류가 핵심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후원에 감사함을 표하고 시설의 소식을 전하며 인위적이지 않은 친절과 개방을 기초로 시설이나 기관의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후원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a) 기관의 외적환경과 후원자원의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b) 후원자원을 동기, 종교, 직업, 거주지역 등 특성별로 차별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c) 모든 직원들에게 후원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체 직원들이 후원자의 욕구를 접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업무의 담당자를 두어 담당자에 의해 통합,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계속적인 후원유지와 개발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과 표현, 정기적인 연락과 관심, 사업 및 후원성과 공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e)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확충과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후원회원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한 입력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접수된 자료의 수정작업과 재발송 작업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후원현황을 꾸준히 파악함으로서 월별 신규개발현황, 신규개발 동기별 현황, 후원금, 접수현황, 자원대비 참여율, 우편물 반송사유, 중단된 후원자의 현황, 자원봉사자의 활동현황 등의 자료가 월말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c. 교회사회사업의 도입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인식면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자원면에서는 시설과 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늘날 사회사업은 전문적으로 그 영역을 넓히며 발전하여 가고 있지만, 교회의 복지사업은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회사회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회사회사업은 기독교의 자선사상을 근거로 하여 사회를 향한 복지사업을 보다 과학적이며,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사업을 도입하는데서 출발했다. 즉 사회사업의 필요성 왜'라는 당위성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사회사업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방법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사회사업이란 "교회의 잠재된 자원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사업의 원칙과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의 한 영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사업은 체계화, 조직화와 함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그러나 교회의 사회사업은 독립된 영역으로 엄밀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스스로의 전문적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 교회는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사회사업은 행정가로서 사업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계획, 실천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일곱 집사를 세워 구제사업을 전담시켰던 것도 구제사업의 전문화이다. 이것이 사회사업의 출발이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면, 마땅히 현대교회도 구제의 사역을 전담할 전문사회사업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사회복지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체의 성장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서구와 같이 사회복지 제공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갈등이 심해 국가개입 후 교회의 역할이 줄어든 것과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가 정부재정 중 사회복지사업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조직인 교회의 참여를 조장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민간분야로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Ⅳ. 나오는 말

한국에 근대적인 특수교육과 같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소개하여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

은 개신교 선교초기의 선교사들이다. 의료선교사인 로제 타 홀(R. S. Hall)여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특수교육, 재활치료, 수용보호 등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의 장애인복지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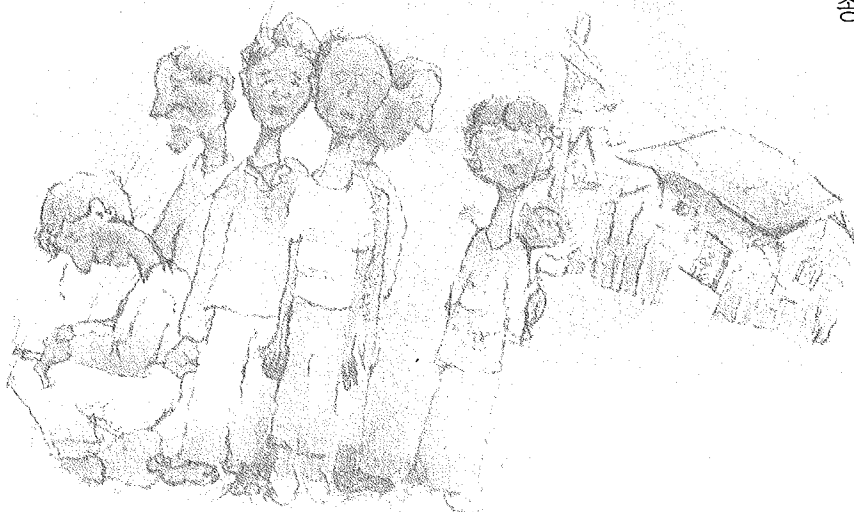
이러한 선교사들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성경의 사상과 교훈과도 일치한다. 구약성경의 약자보호제도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선교활동을 고찰해 볼 때 선교사들이 실천한 장애인복지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성경적인 선교활동이었다.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외된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만나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워준 장애인선교와 복지에 대한 교회사회사업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교회는 급속한 교회성장과 더불어 선교에 눈을 뜨면서 특수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회 밖에서 장애인선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에 이르러 장애인의 해(1981)와 장애인올림픽(1988)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의 관심도 고조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애인주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대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교회(장애인교회 포함)는 약33개이며, 장애인선교회는 약 15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도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나라는 장애인구를 약 10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실제적으로는 400만에 이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불편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의 정책과 지원예산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개발과 동원아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사랑의 자원을 개발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랑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교회가 장애인선교와 복지에 필요한 재정자원, 시설자원,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1) 부정적인 장애인관과 소극적인 복지의식이다. 동정과 자선과 자비와 차별이 한국교회의 장애인관을 대표하고 있다.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반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복지의식이 부족하여 교회가 직접 장애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2) 재원의 부족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사회사업에 필요한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잇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잠재된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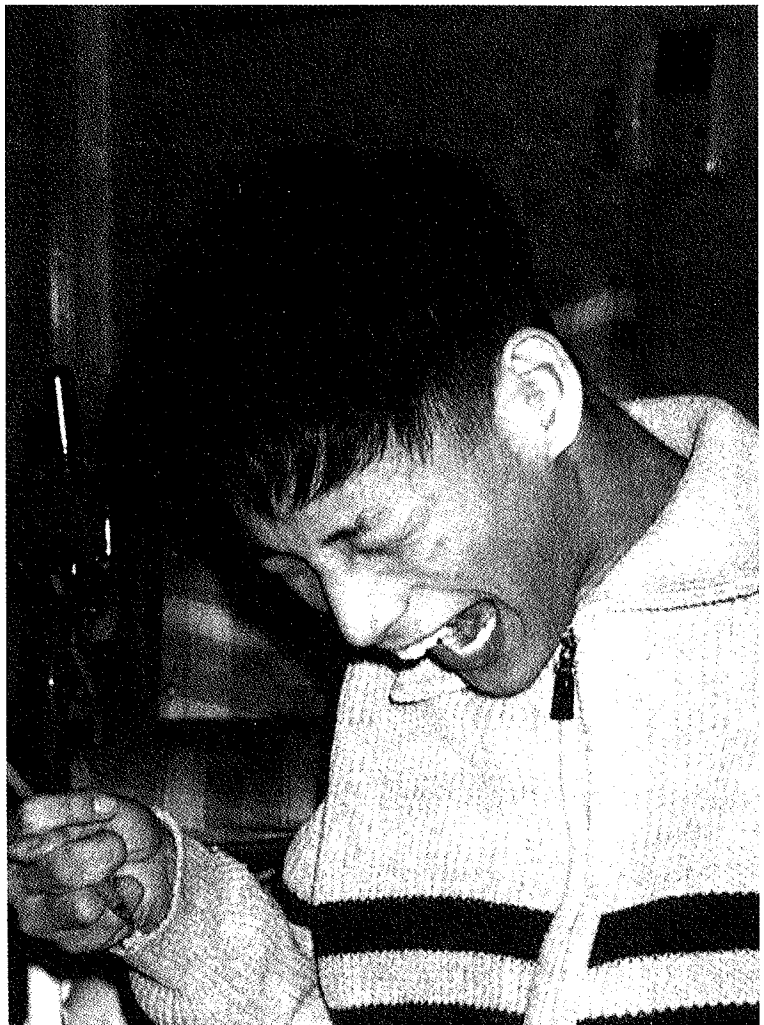
3) 운영의 전근대성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선교회들이 대부분 임의단체여서 조직과 체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세하기 때문에 단순구제 차원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인력의 부재로 장애인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잇다.

1) 긍정적인 장애인관과 적극적인 복지의식이다. 이것은 성경적 장애인관으로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들의 복지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사회사업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 특히 지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신학교 교과과정과 목회자 교육과정에 반드시 교회사회사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계몽이 필요하다.

2) 후원사업의 개발이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확보된 자원은 부족하지만, 잠재된 자원은 많으므로 후원사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개발과 마케팅 차원에서 지속적인 후원개발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후원자 관리가 필요하다.

3) 교회사회사업의 도입이다.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사업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순 구제차원의 비생산적인 사업보다는 예방과 재활차원의 생산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점과 개선책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와 선교는 증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와 연합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회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서 연합과 활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교회의 시설을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교인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선교회, 또는 선교회와 복지기관과의 연합은 전문성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와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연대하여 교육이나 계몽도 연합사업으로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후기

감격스러웠다.
흑백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칼라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그 날의 감격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다. 올해 학생회에서 그동안 흑백으로만 출판되던 헤럴드지를 칼라로 옷입히게 되었으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박-

글들의 바다에 온 듯했다. 읽어도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글,,,,,
예사로 넘길 수 없던 글들도 '오자'를 찾아 낸다는 일념하에 관심을 갖고 깊게 읽게 되었다. 오히려 '오자'보다도 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감격스럽다. 드디어 글들의 바다 속에서 헤어날게 됨이 ...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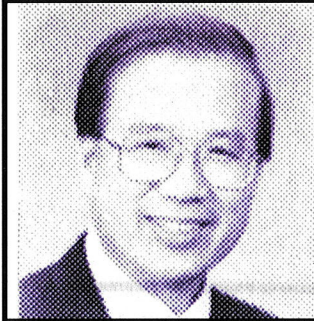
첫 학기 부터 이런 영광(?)스런 일들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 책이 나오기도 전에 모든 글을 접하게되어 기쁘다. 마치 시험전 답을 본 듯한 야릇한 기분이라 할까? 좋은 글들이 정말 너무 많다. 이 책을 접하게 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시험의 답안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장-

지금까지 과정 하나 하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시작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온 학술부 모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이지 않을까? 학술부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외치고 싶다.
-서-

월드 미션 헤럴드 발간을 축하합니다.

후원 교회

Trinity Evangelical Brazilian Church

Pastor. Dong Joon Kim

유니온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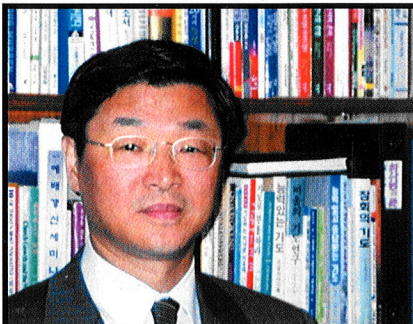
담임 목사: 이정근

626) 858-8300

예원선교교회

THE YEWON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황재륭

562) 402-0094

임마누엘선교교회

IMMANUE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안용식

323) 939-5522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 강준민

626)798-9100

후원 업체

월드 미션 헤럴드 발간을 축하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신학대학원

1.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 /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A	성경신학과	126	4	고졸
M.A.	신학과	64	2	대졸
M.Div	목회학과	96	3	대졸
D.Min	목회학과	40	3	M.Div졸업 목회+3년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원장자격증	15 18	1학기	고졸

2. 신입생 입학요강

(1) 지원자격 :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자로서 선교, 목회 또는 기타 세계 복음 사역에 불타는 소명감이 있는자(유아교육과:세례교인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자)
(2) 원서마감: 2000년 8월 18일(금) 오후 7시까지
(3) 구비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추천서 3통(소정양식) 3) 사진2매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6) 개인신앙간증서
(4)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어학시험 및 성경입학시험: 성경시험지침, 예제가 준비되어있음)
(단, 유아교육과는 서류심사와 면접)
(5) 시험일자: 2000년 8월 21일(월)–22일(화) 오후 3시–6시
(6) 장 소: 필기시험–본교 A 강의실, 면접–본교사무실
(7) 원서교부: 본교사무실(동양선교교회 옆 제2 교육관)
(8) 신입생 학과등록: 2000년 8월 23일(수)–24일(목)
(9) 개강 부흥회: 2000년 8월 28일(월)–29일(화)
(10) 개강일자: 200년 8월 28일(월) (* 개강 주간은 부흥 사경회로 모임)
(11) 신입생 환영 및 교수 소개: 2000년 6월

3. 교수 및 강사진

임동선, 이정근, 안용식, 임성진, 남종성, 신선묵, 김영배, 김진광, 이영기, 박광철, 최선호, 정장복, 조종남, 조경현, 조경근, 한승수, 안수훈, 허경삼, 우상범, 강준민, 김형태, 조석환, 유의영, 박보경, 이상훈, 이윤주, 이기홍, 고남철, 김성원, 편요한, 백운주, 김용창, 오기열, 김종경, 이준재, 박경순, 변명혜, 이효숙, 김옥자, 안성희, 정지연, 에스더 유, David J. Agron, Daniel Shaw, Dean Gilliland, Earl Grant, Charles Van Engen, Paul Hertig 외 다수(무순)

4. 본교 장학금 제도

1) 총장장학금 2) 성적장학금 3) 주은장학금 4) 선교장학금 5)근로장가금 6)지정장학금 7) 대여장학금 8) 승용장학금 등이 있으며 또한 동양선교교회의 각 선교회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특별히 M.Div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선교사로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을 수여합니다.

5.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본교 교무처,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주시면 입학원서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무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 (323)466-4629 Fax: (323)466-7840
E-Mail: wmumain@aol.com / Website:www.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logical Seminary(월드미션 대학교 및 신학 대학원)
총장: 임동선 박사, Ph. D., D.Min , 대학원장: 안용식박사, Ph. D